

우리학교 4년 이끝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초대총장 김동선
1981.03.01 - 1984.02.29



제2대 총장 황병태
1984.03.01 - 1987.12.21



제3대 총장 박필수
1988.02.05 - 1990.03.17



제4대 총장 이강혁
1990.04.14 - 1994.04.13



제5, 7대 총장 안병만
1994.04.14 - 1998.02.28
2002.08.24 - 2006.02.28



제6대 총장 조규철
1998.08.24 - 2002.08.23



제8, 9대 총장 박철
2006.03.01 - 현재



제 10대 총장

제10대 총장후보선거가 약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우리학교의 4년을 책임질 차기 총장 자리를 놓고 8명의 교수들이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한다.

15일 실시될 제1차 투표에서 △기호 1번 김민녕(상경대학 국제통상학과) △기호 2번 장태상(국제지역대학 아프리카학부) △기호 3번 강덕수(서양어대학 노어과) △기호 4번 정경원(서양어대학 스페인어과) △기호 5번 박노호(서양어대학 스칸디나비아어과) △기호 6번 김중렬(상경대학 경제학부) △기호 7번 김인철(사회과학대학 행정학과) △기호 8번 이정희(사회과학대학 정치외교

학과) 총 8명의 입후보자들이 겨루게 된다.

1차 투표에서 총 투표수의 과반수를 얻은 후보가 있을 경우에는 과반수 득표자와 차점자를 총장후보로 확정하나,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 2차 투표를 진행한다. 2차 투표는 1차 투표에서 10%이상 득표한 후보 5인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이번 달 22일로 예정된 결선투표에서 2인의 총장후보가 선출되면 총장후보추천위원회가 후보자들을 법인이사회에 추천해 이사회에서 총장을 최종 선임하게 된다.

우리학교 총장후보선거는 교수 직선제로, 학생과 직원들에게는 선거권이 주어지지 않는다. 이에 양 배움터 총학생회는 하반기 정기 학생총회에서 '총장 선출권을 학내 구성주체인 학생에게도 부여하라'는 안건을 의결한바 있다.

서울배움터 총학생회는 20일부터 22일까지 온라인으로 학생 총 투표를 실시해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며, 글로벌배움터 총학생회는 교수협의회와 총장에게 공문을 보내 학생 투표권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총장후보추천위원회에서는 학생대표자에게 초청토론회 방향을 개방하고, 이번 선거 이후

해당 위원회를 구성해 제11대 총장후보 선출방식에 대해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동조합 또한 '제10대 한국외국어대학교 총장 후보자 선출 직원위원회'를 구성해 직원들이 직접 총장 후보자를 선출한 후 이사회에 추천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총장후보선거 입후보자들의 정견발표 동영상은 학교 홈페이지 하단의 HOT Banne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1차 선거를 통과한 입후보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총장후보자 초청토론회가 19일 글로벌배움터 우덕홀, 21일 서울배움터 애경홀에서

개최된다. 학내 구성원들에게 공모 받은 질문들을 바탕으로 질의응답과 상호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학생대표와 직원대표가 1인씩 질의자로 참석하며, 동일한 시간 학교 홈페이지 초청토론회 배너와 케이블 TV(디지털방송: 채널 19-1, 아날로그 방송: 채널 75)에서 생중계된다. 본지에서도 제10대 총장후보선거를 맞아 입후보자 특집 인터뷰를 진행했다. 앞으로 우리학교의 4년을 이끌어갈 새 총장으로 어떤 후보가 선출될지 학내 구성원 모두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은결 기자 86leg@hufs.ac.kr

커버스토리 6·7·8·9면

총장후보선거 특집 제10대 총장후보선거 입후보자 인터뷰

일본어대학 '시민인문대학' 큰 인기 속 1기 시작

일정	주제	강사	장소
11월 16일(토)	한·일 비교문화론 -지상형 사회와 천정형 사회-	이응수 (세종대 교수)	시사일본어학원 별관 테스트메이트 404호
11월 25일(월)	한·일 교류와 문화 접면	정재정 (서울시립대 교수)	동대문도서관 2층 시청각실
12월 2일(월)	화투를 통해 본 일본 문화	최종희 (한국외대 교수)	동대문도서관 2층 시청각실
12월 9일(월)	일본사상의 고유성과 복합성	박진우 (숙명여대 교수)	동대문도서관 2층 시청각실
12월 16일(월)	커뮤니케이션과 일본인의 언어 행동	김동규 (한국외대 교수)	동대문도서관 2층 시청각실
12월 23일(월)	일본인의 전쟁관과 역사인식	이상훈 (한국외대 교수)	동대문도서관 2층 시청각실

▲11월 16일 이후부터 진행되는 시민인문대학 강의일정표이다.

우리학교 일본어대학이 시사일본어사의 후원과 동대문도서관의 협력으로 '시민인문대학' 제 1기 강좌를 개설했다. '인문학을 통한 일본 이해'를 주제로 일본어대학 교수들이 한차례씩 강의를 진행한다. 이번 시민인문대학은 전액 무료이며 지난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일본어대학 이메일(hufs.jp@hufs.ac.kr) 접수 등을 통한 온라인 수강신청이 이뤄졌다. 강의는 10월 7일부터 12월 23일까지 매주 월요일 또는 토요일에 진행된다.

시민인문대학은 한국과 일본 간의 상호이해와 우호협력 도모를 취지로 개설됐다. 특히 '인문학을 통한 일본 이해'라는 제 1기의 주제는 문학·역사·철학으로 대표되는 인문학을 통해 일본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일 양국의 인사말을 통한 상호 문화의 이해, 한국 문화의 동류와 일본의 맨얼굴, 한일 설화를 통해 본 유교와 불교의 효 등 취지에 걸맞은

다양한 강의가 진행됐다. 당초 50~60명 규모의 모집을 계획했으나 신청자가 100여명에 이르러 일본어대학에서는 정원을 늘리고 무료로 청강생을 받도록 했다. 최재철 일본어대학장은 "일본에 대한 이해가 대중에게 확산되길 바라는 의미에서 수강을 원하는 모든 학생을 수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전했다. 시민인문대학의 매 강의는 평균 40명 이상의 학생이 참석하는 등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수강

생 설문조사 결과, 이는 대중의 일본에 대한 본격적인 인문학적 접근의 욕구가 나타난 것으로 분석된다.

최재철 일본어대학장은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수강자들의 기대에 부응해 제 2기도 기획 중"이라며 "이러한 강의가 단과대학 차원에서 그치지 않고 우리학교 전체로 퍼져 시민들이 다양한 나라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기대를 밝혔다.

임수진 기자 87curious@hufs.ac.kr

코모로프스키 폴란드 대통령, 우리학교 방문



사진:전라북도립미술관

▲지난 10월 23일 우리학교를 방문한 브로니스와프 코모로프스키 폴란드 대통령이 특강후 폴란드어과 민속공연 학생들과 함께 사진을 찍고 있다. 이날 코모로프스키 대통령은 '유럽 속의 폴란드, 폴란드 속의 유럽'이라는 주제의 특강을 진행했다.

브로니스와프 코모로프스키(Bronisław Komorowski) 폴란드 대통령이 지난 10월 23일 우리학교 서울 배움터 애경홀을 방문했다. 10월 21일부터 24일까지 우리나라를 국빈

방문한 코모로프스키 대통령은 방한 첫날 우리학교에서 '유럽 속의 폴란드, 폴란드 속의 유럽(Poland in Europe, Europe in Poland)'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폴란드

어과 학생들의 폴란드 민속춤 축하 공연도 이어졌다. 이날 박철 총장은 코모로프스키 대통령을 우리학교 명예동문으로 위촉해 명예동문증을 수여했다.

코모로프스키 대통령은 이번 특강에서 중동유럽 내 대표적인 중견국가로 EU의 주요 정책결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폴란드의 국제적인 역량과 더불어 한국과의 교류에 대해서 언급했다. "한국과 폴란드 두 나라는 전쟁과 분단 등 유사한 점이 많다"며 "양 국가가 서로 먼 거리로 떨어져 있지만 비슷한 역사적 경험을 가졌다"고 말했다.

또한 "1950년대 폴란드에 북한의 전쟁고아들이 많이 입양됐는데, 당시 고향인 브로츠와프에서 음악 교사인 어머니를 통해 한국인을 처음 만났다"며 "여학생들이 한국 민요를

부르고 춤을 춘 기억이 난다"고 우리나라와의 오래된 인연을 떠올렸다. 20여 분의 특강 후 자리에 참석한 학생들과의 질의응답시간을 가졌다.

그는 "한국외대에서 130명의 학생이 폴란드어를 배우고 폴란드에서도 마찬가지로 많은 학생이 한국어를 배운다"며 "이들이 문화, 경제 등 다양한 분야로 양국 관계에 큰 기여를 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방문에 동행한 영부인 안나 코모로프스카는 지난 2012년 10월 25일 우리학교 글로벌배움터에서 개최한 '제 3회 동아시아 3개국(한국·외대·북경외대·동경외대) 폴란드어과 연합 국제학술대회'에 방문한 바 있다.

신민지 기자 86hufspress@hufs.ac.kr

지면안내

2 글로벌배움터 이색 축제

3 양 배움터 학생대표자 선거일정은?

6·7·8·9

총장후보선거 특집 후보자인터뷰

12 박원순
서울시장의 바른
대학사회와 청년정책



학내 브리핑

유학가기 전 개정된 국제교류 규정
확인하고 가세요!

국제학술교류규정 시행 세칙 및 운영지침 4항 목이 개정됐다. △국외교류 최소 이수 학점 관련 규정 △파견장학금 관련 규정이 신설됐으며, 변경 된 사항은 △프로그램 명칭 변경(단기연수 프로그램)에서 해외연수 프로그램) △졸업시험(논문) 면제 관련 규정이다.

개정된 규정에 따라 2014학년도 1학기부터 교환, 7+1, 자비, 복수학위생, 학·석사연계과정으 로 파견되는 학생은 1개 학기에 최소 6학점을 이수해야한다. 최소 이수학점을 미이수한 파견학 생은 파견장학금을 전액 반환해야 한다. 또한 해 외대학교 이수 전공과 무관한 전공의 졸업시험 (논문) 면제를 방지하기 위해 복수학위생들은 해 외대학교 이수 전공이 우리학교 전공과 일치 또 는 유사한 경우에만 졸업시험(논문을) 면제받을 수 있다.

졸업시험, 졸업논문 일정 잊지마세요

2학기 졸업시험과 졸업 논문 제출 일정이 다가 왔다. 이는 현재 3학년 과정을 이수하고 7학기 이 상 재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서울배움터 졸업시험 은 18일부터 19일까지 치러지며 논문은 27일까 지 제출해야 한다. 글로벌배움터 제 1전공자 졸업 시험 일정은 서울배움터와 같은 18,19일이며 제 2전공 · 이중전공 · 전공심화(부전공)해당자 · 기 타언어해당자의 졸업시험 기간은 25일부터 26일 까지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학과(부)에 문의해야 한다. 이번 해 정규 FLEX는 12월 1일에 마지막으 로 실시될 예정이다.

이중전공 및 부전공 신청기간
놓치지 마세요!

글로벌배움터 2014~1학기 이중전공 및 부전공 (전공심화) 신청이 25일 오전 10시부터 29일 오후 4시까지 진행된다. 신청대상은 07~13학번 중 2 개학기 성적 취득(예정)자이며 신청방법은 학교 홈페이지 종합정보시스템에 로그인해 전공/교직 관리에서 원하는 이중 · 부전공을 선택하면 된다. 단 07~12학번 이중전공 최초신청자는 학사종합 지원센터에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 은 학교 홈페이지(www.hufs.ac.kr) 공지사항을 참조하길 바란다.



▲지난 10월 31일 글로벌배움터에서 할로윈축제가 있었다. 건물 외관부터 화장실까지 이색적으로 꾸며진 학생회관에서 학생들이 즐거운 축제를 보내고 있다.

2학기 축제가 없어 아쉬웠던 글로벌배움터 학 생들의 마음을 채워주기 위해 글로벌배움터 총

웰컴 투 할로윈 파티 공포체험과 함께한 글로벌배움터 가을대동제

학생회에서 10월의 마지막 날, 할로윈 파티를 열었다. 이 날 학생회관 앞 마당에는 잭 오 랜턴 콘테스트, 타로 점, 로테오 등 다채로운 부대 행 사가 진행돼 학생들의 오감을 사로잡았다. 곳곳 에서 다양한 소품을 활용해 패기가 준비되는가 하면 귀신 분장을 한 학생들이 나타나 할로윈 데 이의 오색한 분위기가 연출됐다.

어둑해지기 시작한 저녁 6시부터 공연이 시 작됐다. 학생회관 앞의 무대에서 통기타 동아 리 ‘외비가디’가 공연의 막을 올렸다. 밴드 ‘데이 브레이크’도 초대돼 이 날 파티를 더욱 빛냈다.

그 자리에는 많은 학생이 모여 공연을 즐겼다. 김혜미(동유럽 · 폴란드어 09) 양은 “살쾅한 날 씨였지만 재밌는 공연을 위해 열심히 노력한 모습이 돋보였고 그만큼 즐거운 시간을 보냈 다”며 축제에 만족감을 드러냈다.

공연이 끝난 후에는 할로윈 파티의 본 행사인 ‘공포체험’이 진행됐다. 이 행사는 학생회관에 꾸 며진 ‘귀신의 집’으로 들어가 복도를 돌며 공포체

험을 하는 것이다. 체험을 하고 나온 서정원(통번 역 · 이탈리아어 09) 양은 “귀신 분장이며 배경이 실제처럼 느껴질 정도로 무서웠고 참신했다”며 소 감을 전했다.

이후 9시부터 학생회관 앞에서 클럽파티가 시 작됐다. 학생들은 DJ의 음악과 함께 흥겹게 파 티를 즐겼다. 총학생회는 학생들에게 무료로 맥 주를 나눠주는 등 분위기를 달궜다. 밤 늦게까지 계속된 할로윈 파티는 별 탈 없이 성공적으로 마 뒀다. 행사에 끝까지 참여한 박소미(국제지 역 · 그물 13) 양은 “기대 이상으로 좋은 행사였 고 학교에서 이렇게 재밌게 놀 수 있어 즐거웠 다”고 말했다.

한편, 축제를 기획한 전형근 글로벌배움터 총 학생회장은 “처음 있는 행사인데도 많은 학생들이 찾아와 의미있는 시간이었다.”며 무사히 할로 윈 파티를 마친 소감을 전했다.

허규범 기자 87kennedy0412@hufs.ac.kr

우리학교 학제개편위원회 발족

지난 9월 25일 우리학교 글로벌배 움터 제4차 확대운영위원회를 통해 학제개편심사대책 위원회(이하 비대 위)가 발족됐다. 이 과정에서 서울배 움터는 지난 10월 7일 정기총회에서 ‘비대위 발족은 신의를 저버리는 행 위’라며 유감을 표하기도 했다. 하지 만 이후 26일 “비대위의 활동방향을 이해했으며 양 배움터의 학생모두가 발전하는 안이 나오기를 기대한다” 고 공식입장을 밝혔다.

비대위의 발족 취지는 본 · 분교 통합 이후 학제개편의 올바른 방향 을 제시하고 학교와 학생 상호간의 유기적인 소통을 추진하기 위함이다. 비대위는 학교 측에서 본 · 분교 통합을 위한 유사중복학과가 없도록 학사제도 차별화와 특성화 준비가 아닌 학과 및 단과대학의 명칭만 개 정하는 겉핥기식의 행정으로 일관됐 다는 점을 지적한다.

비대위의 목표는 본 · 분교 통합 정식 시행되는 2014년 1학기부터 학사제도가 제검토 되는 2016년까 지 2년간 글로벌배움터에 유사학과

로 지정된 학과와 단과대학의 특성 화된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현재 통번역대학은 단과 대학 개편 후 6년의 시간이 흘렀지 만 일부학과와 경우 통번역 관련 수 업이 현저히 떨어진다 는 것이다. 또 한 캠퍼스간 이중전공 제한학과들 의 단과대 특성에 맞는 전공커리큘 럼 심화학과와 대학평가와 외대 발 전에 구심점이 될 이공계의 정원 및 지원확대를 요구 등의 활동 계획을 밝혔다.

순보미나(국제지역 · 아프리카 10) 비대위원장은 “비대위는 단순히 이 번 해까지 일시적으로 활동하는 것 이 아니라 향후 학사제도가 제검토 되는 16년도까지 꾸준히 학생들의 자발적 참여로 학과 당국과 교수진 들에게 커리큘럼의 특성화와 교육환 경 개선을 요구해야 될 것”이라며 학 생들의 관심과 참여를 호소했다.

비대위는 10월까지 학생위원을 모 집했고 현재도 계속 추가모집하고 있다. 최소영 기자 87artist@hufs.ac.kr

구기숙사, 자연과학대 화장실 새 단장

내년에는 더 나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신기숙사 건설로 2011년 9월부 터 사용되지 않던 구기숙사 여학생 동이 리모델링된다. 리모델링은 10 월 11일부터 시작됐다. 2인실 40 개, 4인실 32개로 총 208명의 학생 들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로 인해 자취하는 여학생들을 기숙사에 조 금이나마 더 수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리모델링은 외관 뿐만 아니 라 기숙사 내부의 △보일러 설비 △실내 장식 △가구 교체 △EHP(냉, 난방 기구) 설치 등을 통해 현 재 있는 신기숙사 내부기능에 뒤처 지지 않도록 건설 중이다. 송주환 글로벌배움터 기획건설팀장은 “구 기숙사는 현재 신기숙사보다 저렴 한 가격으로 제공해, 2014년도 신 입생들도 바로 받을 수 있도록 다 음 해 3월에 완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허규범 기자 87kennedy0412@hufs.ac.kr

한대련 가입유지, 논란 끝에... 학생들 69.2% 탈퇴 원해

지난 4일부터 8일까지 실시된 21세기 한국대학생연합(이하 한대련) 재신임 정책투표결과, 투표자의 69.2%가 한대 련 탈퇴에 찬성여사를 표명했다. 서울 배움터 총학생회는 다음 비상전체학생 대표자회의(이하 전학대회)에서 한대련 탈퇴를 의결하게 된다. 이번 정책투표 의 성사 투표율은 정기총회 성사 성원비 율과 동일한 재학생 10%이상으로, 재 적인원 7981명 중 12.3%인 985명의 학생이 표결해 가까스로 성사됐다. 투 표결과, 집계된 투표인원 971명(오차 14명) 중 찬성성 240명 (24.3%) 반대 682명 (69.2%) 무효 63명 (6.3%)으

로 학생들은 한대련 가입유지를 반대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투표에 참여한 김 동규(서양어 · 노어 12) 노어과 학생회 장은 “이번 투표결과가 적극적으로 반영 됐으면 좋겠다”며 “한대련과 연대하는 대 학이 점점 줄어든다면 어떤 형태로든 새 로운 연합체가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2005년 출범한 한대련에는 현재 전 국 15개 대학 총학생회와 100여개 단과 대학 학생회가 가입해 활동하고 있다. 한대련은 가입된 총학생회에 학내 문제 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농민-학생 연대활동 등의 행사에 실무적인 지원과 대학생들이 사회에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창구의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특정 정치이념 · 정당에 동조하는 등 정치적 편향성으로 비판을 받아왔다. 이로 인 해 많은 대학들이 탈퇴하기에 이르렀 고, 한대련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고려대학교 총학생회도 지난 해 학생 총 투표를 실시해 탈퇴를 결정한 바 있다. 우리학교 서울배움터도 2010년 제44 대 총연감 총학생회 때 한대련 가입 후 지속적인 논란을 빚어왔다. 가입 당 시 방학 중에 열린 임시 확대운영위원회 에서 가입을 결정해 전체학생들의 의견 을 반영하지 못했다, 한대련이 특정 입직단을 지지하는 문제로 학생들의 반

감을 샀기 때문이다. 이에 제47대 외대 's candle 총학생회는 선거 당시 한대련 재신임에 대한 총투표를 공약으로 내걸 었고, 상 · 하반기 정기 학생총회에서 투표안건으로 상정했으나 성원미달로 결의되지 못했다. 조봉현(사범 · 영교 09) 총학생회장은 “학생총회에서 투표 가 성사되진 않았지만 한대련 재신임에 대해 꾸준히 논의해오고, 언제라도 떠 오를 수 있는 사안이기엔 정책투표를 실 시하고자 한다”며 지난 10월 25일 비상 전학대회에서 한대련 재신임 정책투표 실시 및 투표결과를 수용할 것을 의결해 이번 정책투표를 진행했다.

이은결 기자 88leg@hufs.ac.kr

이번 해 최고의 동아리는?

글로벌배움터 동아리어워즈 개최



▲동아리 외경사랑에서 절도 있는 경도 대련을 보여주고 있다.

이번 선거 총 유세기간 동안 등록 운동 원을 후보자 등록 후 중앙선거관리위원 회 의 논의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글로벌배움터는 입후보자는 7일 단 일선거본부로 최종 확정됐다. 선거본부 ‘ACTION’의 총학생회장 후보는 최한 술(동유럽 · 루마니아어 10) 군. 부총학 생회장 후보는 황장호(통번역 · 영어 09) 군이다. 선거유세기간은 11월 11일 부터 25일까지며 선거유세 마지막 날인 25일에는 후보자의 선거결산자금을 공 전 9시 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투표가 진행되며 투표율이 투표 성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 회의 재량으로 예비일 2일을 연장할 수 있다. 투표 마감 후 개표를 거쳐 29일

당선이 공고된다. 정견토론 일정의 경 우 후보자 등록 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의 논의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글로벌배움터는 입후보자는 7일 단 일선거본부로 최종 확정됐다. 선거본부 ‘ACTION’의 총학생회장 후보는 최한 술(동유럽 · 루마니아어 10) 군. 부총학 생회장 후보는 황장호(통번역 · 영어 09) 군이다. 선거유세기간은 11월 11일 부터 25일까지며 선거유세 마지막 날인 25일에는 후보자의 선거결산자금을 공 전 9시 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투표가 진행되며 투표율이 투표 성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 회의 재량으로 예비일 2일을 연장할 수 있다. 투표 마감 후 개표를 거쳐 29일

당선이 공고된다. 정견토론 일정의 경 우 후보자 등록 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의 논의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글로벌배움터는 입후보자는 7일 단 일선거본부로 최종 확정됐다. 선거본부 ‘ACTION’의 총학생회장 후보는 최한 술(동유럽 · 루마니아어 10) 군. 부총학 생회장 후보는 황장호(통번역 · 영어 09) 군이다. 선거유세기간은 11월 11일 부터 25일까지며 선거유세 마지막 날인 25일에는 후보자의 선거결산자금을 공 전 9시 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투표가 진행되며 투표율이 투표 성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 회의 재량으로 예비일 2일을 연장할 수 있다. 투표 마감 후 개표를 거쳐 29일

서울배움터 단과대학 선거일정

단과대학	선 거 일
글로벌경영대학	11월 27일(수)~11월 28일(목)
국제학부	11월 20일(수)
동양어대학	12월 4일(수)~12월 5일(목)
법과대학	11월 20일(수)~11월 21일(목)
사회대학	12월 3일(화)~12월 4일(수)
성경대학	11월 25일(월)~11월 26일(화)
영어대학	11월 20일(수)
일본어대학	11월 27일(수)~11월 28일(목)
중국어대학	12월 3일(화)~12월 4일(수)

글로벌배움터 단과대학 선거일정

단과대학	선 거 일
경상대학	11월 26일(화)~11월 28일(목)
공과대학	12월 3일(화)~12월 5일(목)
국제지역대학	11월 26일(화)~11월 28일(목)
동유럽대학	11월 26일(화)~11월 28일(목)
인문대학	11월 26일(화)~11월 28일(목)
자연대학	12월 3일(화)~12월 5일(목)
통번역대학	11월 26일(화)~11월 28일(목)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2014학년도 전기 석사/박사/석 · 박사통합 학위과정 신입생 모집

1. 2014학년도 전기 입시신청 일정

구 분	원서 접수	전형 일시	합 격 자 발 표	등록기간(예정)	비고
일반전형	2013.11.11(월)~11.15(금)	11.30(토) 10:00	12.12(목) 14:00	12.16(월)~12.20(금)	

2. 지원자격

가. 특별전형

- 1) 석사 및 석 박사통합: 국내 외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2014년 2월 취득 예정인 자로 학사과정 총 평점 평균이 3.0(4.5만점 기준) 이상인 자
- 2) 박사: 국내 외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2014년 2월 취득 예정인 자로 석사과정 총 평점 평균이 3.5(4.5만점 기준) 이상인 자

나. 일반전형

- 1) 석사 및 석 박사통합: 국내 외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2014년 2월 취득 예정인 자
- 2) 박사: 국내 외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2014년 2월 취득 예정인 자

※ 참고) 특별전형과 일반전형의 차이
- 지원자격상에 평점 평균 제한이 있는 점이 다르며 기타사항은 동일하거나 유사합니다. 특별전형은 지원자격상에 일정한 평점 평균 제한이 있으며, 일반전형은 평점 평균 제한없이 자유롭게 지원이 가능합니다.
- 시기적으로 특별전형을 먼저 실시하고 이어 일반전형을 실시합니다.

3. 접수방법

- STEP 1 - 대학원 홈페이지 인터넷 원서작성 및 접수
- STEP 2 - 인터넷 접수 후 출력물 및 구비서류 제출(우편, 방문 등)

※ 반드시 접수기한 내에 인터넷 원서접수와 서류 제출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4. 전형방법

1. 서류심사 및 기술시험(면접)

5. 전형장소

서울캠퍼스(자세한 고사장 및 고사실은 추후 공지)

6. 기타사항

- 가. 다양한 교내 외 장학금 혜택(HUFSan, 입학성적우수, 성적우수, 외국인유학생, 학과근로조교, 재외동포재단, 학생회임원, 교학처근로조교, 정부초청, 한국장학재단, 기타 기업 및 단체 장학금 등)
- 나. 본 대학원과 학점교류 협정을 체결한 국내 외 타 대학원에서 학점교류 가능
- 다. 대학원생 국제저명학술지 논문게재 연구비 지원
- 라. 대학원생 국내 외 학술지 논문게재 연구비 지원
- 마. 우수박사학위논문 연구비 지원
- 바. 전문연구요원 제도 운영
- 사. 기타 본교 도서관 및 시설 이용
7.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학원 홈페이지 www.hufs.ac.kr/gr/kr 및 모집요강 참조
8.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교학처 사무1팀(일반대학원)
TEL. 02-2173-2386 FAX. 02-2173-3369
(우)130-79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로 107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자신을 브랜드화 하라” Creative · Power MBA 2014 전기 신입생 모집

● 모집 과정

· Creative MBA(주간) : 경영학과, 마케팅학과 · Power MBA(야간) : 경영학과 · Power ifMBA (온라인) : 국제금융학과

● 과정의 특징

- 한국외대출신 동문 장학금 (학부성적 3.5이상, 재학 중 1회 100만원)
- 생생한 현장 경험을 접할 수 있는 CEO의 특강을 매학기 정규 교과목으로 개설
- 경영인으로서의 소양을 함양할 수 있는 리더십 프로그램 등 다양한 특강
- 글로벌 CEO 해외과정 동문회초청 세미나(구글 본사, 동문기업 등 방문)
- 국내 · 외 CEO과정 동문과의 교류행사 등 막강 글로벌 동문 네트워크
- 마케팅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국내 대학원 최초의 마케팅학과 개설
- 1:1 담임 교수제 (Academic Personal Advisor)
- 주, 야간, 온라인의 상호 보완적이며 탄력적인 수요자 중심의 교과과정
- MBA 인제뱅크제도, 인턴십 등 다양한 취업 지원 프로그램

● 전 형 일 정

특별전형	원서접수	면접일
	2013. 10. 31(목) ~ 11. 14(목)	2013. 11. 23(토)

※ 자세한 사항은 http://biz.hufs.ac.kr/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문 의

· Creative MBA(주간) : 02-2173-2399, Power MBA(야간) : 02-2173-2408, Power ifMBA (온라인) : 02-725-0085



한국외국어대학교 경영대학원

2013 세계 의상·문화페스티벌 열려

우리학교 학생들이 한문화외교사절단으로 많이 참가



▲지난 8일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2013 세계의상 페스티벌에 참가한 50여개의 대사관들이 한복을 입고 패션쇼를 가졌다. 사진은 패션쇼가 마친후 나란히 서있는 모습이다.

지난 8일부터 10일, 3일 동안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2013 세계 문화 페스티벌'이 열렸다. 또한 행사 첫 날인 8일에는 '2013 세계 의상 페스티벌'이 함께 개최됐다. 이번 행사는 50여개의 대사관이 참가해 각 나라의 문화를 공유하는 '문화 외교전'을 벌였다. 특히 이번 행사에서 통역 등의 업무에서 한문화외교사절단에 속한 우리학교 학생들이 많은 활약을 펼쳤다.

행사 첫째 날인 8일 세계 의상 페스티벌에는 러시아, 터키, 이란, 슬로바키아, 폴란드, 캄보디아 등 51개국의 대사 내외가 한복과 자국의 전통의상을 입고 패션쇼 외교전을 가졌다. 이어 세계 문화 페스티벌에서는 각 대사관에서 준비한 전통의상과 축제물품, 전통 공예품, 전

통 음식 등이 한자리에 모여 관중의 이목을 끌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대추야자와 차를 비롯해 인도의 전통 타투 해나, 루마니아의 대표 와인 시음 행사 등이 색채롭이 진행됐다. 더불어 마지막 날에는 우리학교 글로벌배움터 스페인 통번역학과와 '로스 호베네스', '플라멩코'와 연어통번역학과와 '판타지' 등 학회들이 다양한 공연을 선보였다.

정재민 한문화진흥협회 회장은 "세계 50여 개국 대사와 주한대사관이 참여하는 세계 의상·문화 페스티벌은 오직 이 자리를 통해서만 볼 수 있다"며 "여러 외교관들이 한자리에 모여 다양한 나라의 문화를 선보이는 좋은 기회로 세계문화 교류의 장이 될 것"이라 전했다.

이번 행사 진행에 많은 역할을 한 한

문화외교사절단은 각종 국제문화행사에서 VIP의전 및 통역 등을 담당하며 인원의 40퍼센트 이상이 우리학교 학생들로 구성됐다. 우리학교 학생으로 한 문화외교사절단에서 문화외교5팀장을 맡고 있는 유학재(동유럽·루마니아어 07) 군은 "한문화외교사절단에는 다양한 언어의 통역자리가 있어 특히 다양한 특수어를 배우는 우리학교 학생들에게 많은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며 많은 참여를 독려했다. 게다가 고형기(동유럽·루마니아어 07) 전략기획팀장 역시 "3년 동안 활동하면서 단체가 많이 발전했는데 그 만큼 앞으로 더 많은 우리학교 학생이 참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소영 기자 87artist@hufs.ac.kr

나의 재능을 우리 함께 나눠요

인문대학×통번역대학, 계단장 판매자 되다

11월 11일 글로벌배움터 인문경상관 계단에서 '계단장 프리마켓(Free Market)'이 열려 많은 학생들의 발길을 붙잡았다. 오전 11시부터 열린 이 행사는 인문대와 통번역대가 함께 주최했다. 최준현(통번역·스페인어 08) 통번역대학생회장은 "최근 대학가에서 프리마켓이 유행하고 우리학교는 가을에 단대차원의 행사가 없어 계단장 마켓을 기획하게 됐다"며 행사를 주최하게 된 동기를 밝혔다.

학생들은 직접 만든 어묵과 호떡, 커피, 초코막대과자 등의 먹거리들을 사고팔았다. 또한 무료 타로 점을 봐주고 네일아트를 해주는가 하면 핸드메이드 팔찌를 팔아 다채로운 볼거리를 제공했

다. 인문대에서 자체 제작한 후드티도 학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추운 날씨에 따뜻한 커피를 들고 계단장을 구경하던 김재현(인문·영어인지 07)군은 "황량했던 인문경상관 계단이 모처럼 활기를 피었다. 주기적으로 있으면 좋겠다"며 행사에 만족한 모습을 보였다. 계단장 프리마켓은 오후 5시 통기타 동아리 '외비가다'의 공연을 끝으로 마무리됐다. 한편 양상모(인문·영어인지 10) 인문대학생회장은 "추운 날씨 때문에 걱정했지만 많은 학생이 찾아와 분위기도 좋았다"며 "인문대 자체 제작 후드티의 수익금은 기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허규범 기자 87kennedy0412@hufs.ac.kr



▲11일에 열린 계단장 프리마켓 행사를 방문한 학생들이 인문대학과 통번역대학 학생들이 직접 만든 '휴떡'과 '휴떡'을 먹으며 추위를 녹이고 있다.

당신의 연애는 맑음?

연애특강을 들어보세요

우리학교 학생들의 성공적인 연애 생활을 응원하기 위해 강연·공연 메이킹 팀인 두드림(Dodream Hufs)에서 10월 30일 오후 6시 공학관 207호에서 연애특강을 마련했다. 이 날 강의실에는 100여 명의 학생이 모였다. 이 특강에는 결혼정보업체 '듀오'의 이재목 컨설턴트가 강연자로 나섰다. 강의는 현실적이며 대학생들이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주제로 약 한 시간 반 가량 진행됐다.

이재목 컨설턴트는 학생들의 생각을 직접 묻고 그 답을 듣는 등 관객들과 '소통하는' 강의를 진행했다. 또한 남녀의 실제 연애상황을 연출하며 함으로써 학생들의 쉽고 빠른 이해를 도왔다.

강의는 첫 만남부터 이별하기까지의 전체적인 연애 과정을 구체적이며 현실감 있게 다뤘다. 이재목 컨설턴트는 "연애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직접 부딪

치며 상처도 받아보자", "이별했다고 해서 무조건 내 탓만 하지 말자" 등의 연애 상황에서의 중요한 조언을 전했다. 강의가 끝난 후 약 30분간의 질의응답 시간이 이어졌다. 학생들이 미리 작성한 연애관련 질문지 중 몇 가지를 뽑아 컨설턴트가 대답해주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그보다 야구를 좋아해 데이트 중에도 야구를 쟁거 보는 남자친구가 고민이라는 질문에 그는 "남과 여는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라"며 명쾌하게 문제를 해결했다. 연애특강이 끝난 후 이재목 컨설턴트는 자리에 함께한 학생들과 단체 사진을 찍으며 그들의 성공적인 연애를 바랐다. 그는 "나는 멘토로, 삶의 바른 길을 인도하는 사람도 아닌 평범한 사람이지만 이 평범함이 다른 이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강의를 마쳤다.

허규범 기자 87kennedy0412@hufs.ac.kr



▲지난 10월 30일 글로벌배움터에서 강연·공연 메이킹팀 '두드림'이 주최한 연애 특강이 있었다. 학생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던 특강이 끝난 후 강연자인 이재목 컨설턴트와 학생들이 사진을 찍고 있다.

지구촌을 읽다-③



정한소 교수
태국인문학과 교수

태국의 거리는 가끔 시위하는 군중들의 셔츠 색깔이 노란색 일색이거나 붉은색 일색으로 옷차림이 바뀌는 경우가 있다. 이른바 '옐로우 셔츠'의 집회가 있거나 '레드셔츠'의 집회가 있을 때마다. 그런데 최근 들어 두 가지 색상이 아닌 무채색 차림으로 태국의 국기인 삼색기를 들고 사람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 사면법 제정 반대 시위가 벌어지고 있다. 얼마 전에 입적한 태국 승왕의 조문기간인 탓도 있지만 과거 '옐로우셔츠'나 '레드셔츠' 시위와는 또 다른 양상이다. 그만큼 다양한 계층의 국민이 사면 법안에 대해 반대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현재 태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면법 제정의 배후에는 태국의 부패한 기아가 이미 정치인인 '탁신 친나왓'이 있다. 잉락 친나왓 태국 총리는 바로 탁신의 여동생이다. 지난 해 7월 3일에 치러진 태국

또 다시 탁신의 프레임에 갇혀버린 태국 어디로 갈 것인가?

총선에서 태국의 첫 여성총리로 등극했다. 정치 경력이나 공직 경험이 전무한 그녀가 일약 태국의 총리 자리에 오르게 된 것은 오프 탁신 친나왓의 후광 덕분이다.

그녀의 오프인 탁신 친나왓은 총리시절 태국의 북부와 북동부의 가난한 농민과 서민들에게 획기적인 친서민 정책을 펴으로써 이들 소외계층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탁신은 2001년과 총선에서 승리하여 총리가 되고 2005년 총선에서도 이겨 재집권에 성공했다. 그러나 2006년부터 드러나기 시작한 탁신과 그 일가의 탐욕과 부정부패로 인해 반정부 시위가 격화되면서 방콕의 엘리트 중산층을 중심으로 반탁신 세력이 형성되었다. 이들은 왕실을 등에 업은 엘리트 중산층으로 스스로를 '국민민주주의 연대(PAD)'라고 칭하고 국왕이 태어날 원유일을 상징하는 노란색 셔츠를 입고 집회를 열었다. 이때부터 옐로우셔츠는 왕실을 옹호하고 탁신을 반대하는 세력을 지칭하는 말로 사용되었다.

옐로우셔츠들의 반정부시위가 격화되고 총리사임 요구가 거세지자 탁신은 2006년 2월에 의회를 해산하고 4월 2일에 조기총선을 실시했다. 제 1야당인 민주당이 보이콧을 선언하고 불참한 가

운테 치러진 선거에서 탁신의 타이락타당이 승리했지만 헌법재판소에서 4.2 총선에 대해 무효 판결을 내리고 타이락당에 대한 해체명령을 내렸다. 그러자 정국이 혼란에 빠지고 10월 15일 재선거를 치르기로 결정되었지만 이틈을 타서 군부는 소니 분야합권 대장의 주도 9월 19일에 쿠데타를 일으켰다. 탁신의 독재와 부정부패에 항거하던 옐로우셔츠는 군부의 쿠데타에는 침묵했다.

탁신이 망명길로 들어서고 자산 통령과 유죄판결 등으로 궁지에 몰리자 이번에는 친탁신 세력이 조직되어 움직이기 시작했다. 2006년 12월경에 빨간 셔츠를 입은 무리들이 방콕 거리로 모여 반정부 집회를 하면서 조속한 군정 종식과 탁신의 사면을 요구하였다. 이들은 2006년 9월 군사 쿠데타에 반대하던 세력들에 의해 조직된 내체로 스스로를 '반독재 국민민주연합전선(UDF)'이라 불렀다. 이들이 거리에 나서면서 빨간 셔츠를 입었기 때문에 레드셔츠라고 불려졌다. 이들의 구성원과 지지자들은 북부와 북동부의 농민들과 가난한 도시근로자들이었다.

헌법재판소 판결로 팔랑총당(PPP)이 중심이 된 친탁신 내각이 해체되고 현 야

당인 민주당이 집권하고 있던 지난 2010년 2월 26일 태국 대법원이 탁신 일가의 동결 자산 23억 달러 중 14억 달러를 국고로 몰수한다고 판결하자 레드셔츠들이 대규모 시위에 나섰다. 레드셔츠는 전국적으로 집회를 개최하여 3월 14일 방서 군부는 소니 분야합권 대장의 주도 9월 19일에 쿠데타를 일으켰다. 탁신의 독재와 부정부패에 항거하던 옐로우셔츠는 군부의 쿠데타에는 침묵했다.

현 상황에서 태국 정국의 앞날을 예견하는 일은 쉽지 않다. 사면 법안은 상원에서 거부당할 가능성도 있으며 헌법재판소가 역할을 할 수도 있다. 또, 잉락 정부가 난관에 부딪치게 되면 의회를 해산하고 다시 총선을 치를 수도 있다. 현재까지 군부는 이렇다 할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지만 그러나 감정이 오래 지속되고 뚜렷한 돌파구를 찾지 못하면 태국은 어쩌면 스무 번째의 군사 쿠데타를 경험해야할지도 모른다. 탁신이라고 하는 성공한 기업인이 정치인으로 인해 태국은 10년 넘게 정치적, 사회적 갈등을 겪어 왔다. 태국 국민들이 어떻게 탁신의 프레임에서 빠져 나와 사태를 해결해야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사면 법안이 하원을 통과하면서 태국 정국에서 거센 반발을 가져왔다. 연일 계속되는 거리의 반대 시위에 대해 잉락 총리는 자제를 호소하고 있지만 시위는 날로 격화되면서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시위에 참여하는 계층도 아주 다양하다. 학계와 재계는 물론 비판적 언론과 일부 레드셔츠 세력들의 조차 반대하고 있다. 이로써 태국의 정국은 또다시 안개에 휩싸이게 되었다.

현 상황에서 태국 정국의 앞날을 예견하는 일은 쉽지 않다. 사면 법안은 상원에서 거부당할 가능성도 있으며 헌법재판소가 역할을 할 수도 있다. 또, 잉락 정부가 난관에 부딪치게 되면 의회를 해산하고 다시 총선을 치를 수도 있다. 현재까지 군부는 이렇다 할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지만 그러나 감정이 오래 지속되고 뚜렷한 돌파구를 찾지 못하면 태국은 어쩌면 스무 번째의 군사 쿠데타를 경험해야할지도 모른다. 탁신이라고 하는 성공한 기업인이 정치인으로 인해 태국은 10년 넘게 정치적, 사회적 갈등을 겪어 왔다. 태국 국민들이 어떻게 탁신의 프레임에서 빠져 나와 사태를 해결해야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국외국어대학교 개교 60주년 기념

슬로건 공모전

1. 공모 내용

가. 우리 대학의 역사성 및 상징성, 미래 지향적으로 발전하는 학교 이미지, 국제화 특성 및 글로벌 이미지를 잘 반영할 수 있는 슬로건

나. 국문, 영문 모두 제출

※ 예시 : 외대를 만나면 세계가 보인다
Come to Hufs Meet the World

2. 공모 기간

2013. 11. 13(수) ~ 11. 29(금) 17:00까지

3. 당선작 선정 및 시상

가. 당선작 : 대상 1명(300,000원 상당)
최우수 2명(각 200,000원 상당)
佳作 3명(각 100,000원 상당)

나. 주제적합성, 작품성, 창의성 등을 기준으로 심사

다. 당선작을 중복하여 응모했을 경우, 응모 선착순으로 선정

라. 시상은 12월 초 발표 (개별 통보)

4. 문의 : 전략홍보팀 Tel. 02-2173-2096

외대인이 만난 세계

나 그리고 멕시코 교환학생



처음 멕시코 유학을 결정했을 때 솔직히 기대만큼 걱정도 컸다. 본래 스페인을 가고 싶은 생각에 약간 아쉽기도 했고, 멕시코의 열악한 치안 상황에 가기 전부터 주변에서 걱정도 많았다. 하지만 막상 공항에 도착하니 '이제 진짜구나' 하는 생각이 문득 들었다. 그나마 다행이었던 것은 같이 가는 사람이 있어 서로 많이 의지하며 갔던 것 같다. 어쩌다 길이 험갈리기도 하고 물건을 잃어버릴 뻔도 했지만, 우여곡절 끝에 잘 도착했다.

내가 가게 된 Tec이라는 대학교는 Madrina 또는 Padrino 라고 불리는 데모, 대부라는 뜻의 멘토를 붙여준다. 덕분에 공항 도착 후 부터는 멘토와 함께 밤 편히 집까지 도착할 수 있었다. 특히 집을 계약할 때, 전부 스페인어로 된 계약서를 나 혼자 보고 했더라면 제대로 알아들지 못해 대충 했을 지 모를 일을 덕분에 꼼꼼히 잘 마무리 할 수 있었다.

개강을 하고 수업을 들어가면서, 나름 3년간 수확한 실력에 대한 기대감과 원어인 수업이라는 긴장감으로 교실에 들어갔지만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기분에도 조금 좌절했다. 얼마 동안은 수업이 끝난 후 따로 남아 교수님께 숙제와 모르는 부분을 여쭙봐야 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 정도 익숙해지고 친구도 생기자 친구들의 도움을 많이 받았다.

타국에서 누구나 그렇듯 이곳에서도 문화적 차이를 느낄 때가 많이 있었다. 멕시코 사람들은 의례적으로 30분씩 늦게 도착하는 등 약속시간을 잘 지키지 않는다. 또한 여기는 동양인이 거의 없는 터라 내가 지나갈 때면 고개가 돌아가도록 쳐다보기도 하고 가끔은 휘파람을 불 때도 있다. 처음에는 정말 적응이 안 되고 기분이 나쁠 때도 있었지만 이제는 이런 것들에 익숙해지고 있다.

늦선 곳에서 살며 탈도 많고 문제도 많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도와주고 친절하게 대해줘 잘 적응할 수 있었다. 벌써 한 학기가 거의 지나가고 있다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다. 아마 많은 것을 경험하고 그만큼 정신없는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아직 많은 시간이 남았지만 잘 활용해 더욱 유용한 생활이 되도록 해야겠다.

이화현 (통번역·스페인어 11)

Let the world sing

ARIRANG

in their tongues!

아리랑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등재 1주년 기념
한국외대와 10개 언어로 함께 부르는 아리랑 콘서트

현존하는 40여 종 '아리랑'을 45개 언어로 노래 부르며 하는 일
자랑스러운 우리 문화를 전 세계 사람들에게 그들의 언어로 전파하는 일
오로지 한국외대만이 할 수 있습니다

외대를 만나면 세계가 보인다!

《공연 프로그램 : 노래 '외대합창단'》
10개 언어로 부르는 아리랑
(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독일어, 프랑스어, 이탈리아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아랍어)

창작 뮤지컬 '영웅', 주제가 '영웅' (국어, 중국어, 영어)
창작 뮤지컬 '미라클엔가'의 '이별은 오지 않으리' (국어, 중국어, 일본어)
해외 뮤지컬 '레미제라블', '미스사이공'의 베스트 넘버
(한국어,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이탈리아어, 러시아어, 아랍어)

일시 : 2013년 12월 3일(화), 오후 6시
장소 : 한국외대 사이버관 대강당 (서울시 용인구 이도동)

주관 : 한국외대서울교육원송곡(FBS), 외대합창단
후원 : 한국외국어대학교, 통번역대학원, 언어인지과학과, 외대학보

외대학보가 총장후보에게 묻는다

외대학보에서는 제10대 총장후보선거를 맞이해 학교 발전을 위한 총장후보들의 의견을 물었다. 본 인터뷰는 공통질문으로 구성해 서면으로 진행했다. 선거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후보들의 답변은 신문사 측의 별도 수정없이 게재했으며, 송고 선택순으로 후보자 선후순위에 따라 지면을 배치했다. 질문은 다음과 같다.

1) 핵심 공약 37지를 피력한다면 2) 양 캠퍼스의 시설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계획을 제시한다면 3) 학제개편 등 학내 주요정책 결정에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고르게 수용할 방법을 제시한다면 4) 송도 캠퍼스 개발에 대한 계획은 무엇인가 5) 직원 노조와의 관계는 어떻게 구상하고 있나 6) 학교 법인의 재정분담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은 7) 본 ·분교통합 이후 양 배움터 균형 발전을 위한 특성화된 비전을 제시한다면

기호 2장태상교수



충천고등학교 졸업 (1975.03 ~ 1978.02)
한국외국어대학교 글로벌캠퍼스 아프리카학부 졸업
SOAS, University of London (지역학 석사)
SOAS, University of London (문학박사)
국제지역대학장 (2013.03~2013.08)
어문대학장 (2012.02 ~ 2013.02)
기원차장 (2007.10 ~ 2010.01)
어문대학 부학장 (2006.02 ~ 2007.09)
아프리카학과장 (1998.02 ~ 2002.01)
임사 (1995, 09, 01)
아시아교류재단 이사 (08)
한국연구재단(연구 학술진흥재단) 인문학 심사위원 (2006.03~2007.02)
사립대총장협의회 총무간사(2009.01~2009.12)
한국아프리카학회 부회장 (08)
‘이브라키연구, 편집위원 (08)
세계문화비교학회 편집위원 (2004.01~2006.12)
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문헌연구소 운영위원 (2004.01~2006.12)

1) 핵심 공약 37지를 피력한다면 2) 양 캠퍼스의 시설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계획을 제시한다면 3) 학제개편 등 학내 주요정책 결정에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고르게 수용할 방법을 제시한다면 4) 송도 캠퍼스 개발에 대한 계획은 무엇인가 5) 직원 노조와의 관계는 어떻게 구상하고 있나 6) 학교 법인의 재정분담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은 7) 본 ·분교통합 이후 양 배움터 균형 발전을 위한 특성화된 비전을 제시한다면

기호 4정경원교수



1975년 3월~1979년 2월 한국외국어대학교 스페인어과 문학사
1988년 5월~1992년 8월 멕시코 국립자치대학교 중남미문학 석사, 박사
1994년 3월~현재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2006년 2월~2008년 2월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차장
2008년 3월~현재 한국외국어대학교 총남미연구소 소장
2009년 1월~현재 외교통상부 정책자문위원
2011년 10월~2013년 9월 한국외국어대학교 대외부총장

1) 저의 핵심 공약 3가지는 융복합 교육, 재정 자립도 확립, 분권화입니다. 먼저, 융복합 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연구가 점차 감소하는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대학 특성화는 피할 수 없는 운명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대학은 어문계열을 중심으로 정체성을 유지해 왔지만, 21세기 들어 세계화가 보편화 되면서 그 정체성이 희석되고 있습니다. 이제 생존과 발전을 도약을 위해서 새로운 정체성을 확립할 필요가 있으며, 그 중심에 융복합 교육이 있습니다.

융복합 교육은 현재의 이중전공 제도를 계승하여 개념적으로 재단장 한 후, 이념적, 거시적 가치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먼저, 개념적 측면에서, 융복합 교육은 통섭형 인재의 배출에 목적을 두고 있으며, 따라서 상이한 계열간의 복합 및 융합교육을 중시합니다. 이념적이란 것은, 이것이 우리대학의 새로운 정체성이 되어야 한다는 뜻이고, 거시적이란 말은 재원의 효율적 배분 및 정책, 입시홍보, 신입생의 의식화 등에 있어 융복합 교육이 전면으로 부상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둘째는, 재정 자립도 확립입니다. 외국어사업본부의 역량을 극대화시킨 뒤 등록금 인상 없이도 학교 운영을 위한 재원을 충분히 마련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저는 외국어사업본부 산하 8개 기관의 사업을 활성화하여 2017년까지 매출과 순익을 현재의 251억(2013년 추정 매출)과 58억(2013년 추정 순익)에서 각각 660억(2017년 추정 매출)과 258억(2017년 추정 순익)으로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외국어사업본부 산하 각 기관의 위상을 강화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재원 확충을 위한 발전기금의 유치는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기업은 자기들 때문에 도움이 되는 경우에만 학교를 지원하기 때문에 그들이 관심을 갖고 대학을 지원할 명분을 찾아야 하며, 따라서 발전기금을 체계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사시적인 IT 시스템을 운영하여 기업을 설득하고 그들과 협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합니다. 매년 수천 명

의 학생들이 사회로부터 장학금을 받는 대학, 많은 학생들이 구급상 없이 학업에 정진할 수 있는 대학, 그것이 제가 꿈꾸는 대학입니다.

셋째는, 분권화입니다. 분권화는 21세기 글로벌 인재 육성을 위한 기반이며, 자율과 책임을 강조하는 개념입니다. 분권화된 체제에서는 양 캠퍼스의 부총장이 실질적인 결정의 주체로서 그 권한이 대폭 강화되어야 하며, 교수총원, 명예교수의 임명, 교수의 승진, 승급, 재임용에 관한 학장 및 대학원장직을 확립할 것입니다. 또한, 공정한 인사를 위해 대학본부의 불필요한 간섭은 배제되어야 하며, 합리적이며 교수의 품위가 존중되는 형평성 있는 인사 및 평가 제도가 구축되어야 합니다.

분권화는 인치(人治)가 시스템을 대신해 왔던 외대 60년사를 개혁하는 최초의 시도가 될 것입니다. 불통과 단절보다는 구성원 모두가 비전을 공유하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역할을 분담하는 것이 지속 가능한 성장의 발판이 될 것이며, 이것을 위해서는 교수, 학생, 직원 사이의 분권화된 협력을 이끌어내는 게 중요합니다.

2) 양 배움터의 도서관과 기숙사 문제는 학생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현안이 되었습니다. 기숙사는 초기 투자 비용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민자 유치 방식(BTO 또는 BTU)을 통해 건립하는 것이 좋습니다. 도서관은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고 또 민자 유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기업으로부터 발전기금 형식의 지원을 받거나 재단의 직접 투자 등을 통해서 건립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글로벌캠퍼스의 교통문제는 노선의 증설이나 증편보다는 기숙사를 추가로 건립하는 것이 보다 근본적인 치유책이 될 것이며, 이공계 지원 부족은 융복합 교육의 특화된 프로그램과 이공계에 대한 적극적인 입시홍보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3) 학교의 주체인 학생들이 학사구조조정이 나 학제개편과 같은 사안에 의견을 개진하고 동

약상 다음 질문에 대한 답으로 대신하겠습니다.

2) 서울캠퍼스의 도서관과 기숙사 문제는 저도 그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저는 대운동장 지하 쪽으로 넓고 쾌적한 최첨단 언더그라운드 도서관을 신축하고 학교주변에 기숙사를 추가로 건립할 것입니다. 글로벌캠퍼스는 전면적으로 재조성해야 합니다. 도서관과 기숙사 추가 신축은 물론 기존건물들을 모두 리모델링할 것입니다. 또한 실내수영장, 실내체육관, 피트니스센터, 사우나까지 겸비한 Sports Complex를 세워 구성원복지는 물론 수익사업에 활용할 것입니다. 교통문제는 내년부터 학교와 병房的 서현역, 정자역을 발렛게까지 오는 산관학 협력을 운영해서 해결의 실마리를 트겠습니다. 이공계 지원은 입시에서 대학원까지 종합적인 발전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이공계 입시전담팀을 설치하여 우수신입생 유치 및 이공계 홍보에 나설 것이며 신입생들이 입학 전에 수학 및 영어교육을 받는 '이공계 Pre-School'을 운영할 것입니다. 또한 이공계 교수님 1분당 1년에 1명씩의 대학원생 전액 장학금을 지급하는 이공계 대학원생 1-1-1제도를 신설하겠습니다.

3) 비단 이 문제뿐만 아니라 학내의 다른 주요사안에 대해서도 학교당국의 일방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직선제 총장의 권한은 구성원들의 합의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때로는 구성원들의 의견과 다른 결정을 내려야 할 순간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끊임없이 구성원들을 설득하려는 노력과 진정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정화라든가 위원회 등 민주적 의사결정과정을 위한 여러 제도적인 장치들이 당연히 따라야 하겠지만 제일 중요한 일은 역시 솔직하게 마음을 여는 일일 것입니다.

4) 현재 우리대학은 송도캠퍼스 부지 매입을 위한 비용을 분담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

다. 참하는 것은 바람직하며 꼭 필요한 것입니다. 학내의 중요한 현안에 학생, 교수, 직원들이 평등하게 참여해야 한다는 것이 앞서 말씀드린 분권화의 기본 정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4) 송도캠퍼스 발전계획은 국제비즈니스센터, 한국어문화교육원 건립 등 수익사업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송도에 대한 투자는 우리대학의 재정 여건상 서둘러서는 안 되며, 주변 환경 및 기반시설이 완성되고 활성화된 이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송도가 국제도시로 바뀌게 되면 송도캠퍼스가 우리대학의 발전을 견인하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5) 노조활동 보장과 차별 금지제는 법률로 보호되어 있으며, 우리대학의 노사협력 환경은 타 대학에 비해 매우 양호한 편입니다. 사측은 노조에 가입해 있다는 이유로 특정한 직원이 불이익을 받도록 해서는 안 되며, 노조 측은 노조원과 비노조원 모두 노사 양측으로부터 소외받지 않고 학교 발전에 동참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6) 법인과 학교는 법률상으로는 별개의 기관이지만, 학교발전에 기여하는데 있어서는 분리 비용은 최소화시킬 수 있는 민자 유치 방식(BTO 또는 BTU)을 통해 건립하는 것이 좋습니다. 도서관은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고 또 민자 유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기업으로부터 발전기금 형식의 지원을 받거나 재단의 직접 투자 등을 통해서 건립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7) 캠퍼스 통합과 관련된 저의 소신은 분명합니다. 서울캠퍼스의 학생들이 글로벌캠퍼스에 개설되어있는 교과과정을 융복합 트랙계 지원 부족은 융복합 교육의 특화된 프로그램이나 증편보다는 기숙사를 추가로 건립하는 것이 보다 근본적인 치유책이 될 것이며, 이공계 지원 부족은 융복합 교육의 특화된 프로그램과 이공계에 대한 적극적인 입시홍보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 비용을 완납하게 되면 원칙적으로 송도캠퍼스 건립 원안에 의거해서 캠퍼스 조성을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5) 직원은 교수, 학생과 함께 우리대학의 주체입니다. 당연히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는 존중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공약안에서도 밝혔습니다만 저는 직원도 향후 전임교원처럼 소속감 고취를 위해 캠퍼스별로 선발하고 직원의 본교 대학원 진학 등 재교육과 자기개발을 장려해 나갈 것입니다. 직원 인사에 있어서도 원칙과 화합의 인사를 실천하겠습니다.

6) 우리대학 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은 2012년 기준 67.9%로 대교협 평가원 기준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안정적인 재정적 기반을 확보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법인 재산을 투자하지 않으면 수차상의 안정성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제가 공약집에서도 밝혔듯이 저는 지금 법인소유 재산을 학교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할 시점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자국동 대토 및 토지보상금 활용, 법인 소유 대원빌딩 리모델링 후 수익사업화, 글로벌캠퍼스 인근 8,216평에 달하는 부동산을 학교발전을 위해 투자할 것을 법인에 적극적으로 요구할 것입니다.

7) 내년부터 서울과 글로벌캠퍼스 통합이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이는 제도적 통합에 불과하며 진정한 캠퍼스 통합은 사실과 인프라는 물론, 입시점수와 취업의 질에 이르기까지 양 캠퍼스가 대등하다는 노력과 진정성이라는 확보할 때 완결될 것입니다. 저는 서울캠퍼스는 외국어와 사회과학, 경영, 스포츠 등 현재 편성되어 있는 학문분야를 집중으로 발전시켜 갑니다. 융인캠퍼스는 IT와 외국어를 결합한 LIT 융합학부를 신설하는 등 외국어, 이공계, 인문경쟁상의 장점을 살린 '융복합 캠퍼스'로 점차 특색화 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1) 핵심 공약 37지를 피력한다면 2) 양 캠퍼스의 시설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계획을 제시한다면 3) 학제개편 등 학내 주요정책 결정에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고르게 수용할 방법을 제시한다면 4) 송도 캠퍼스 개발에 대한 계획은 무엇인가 5) 직원 노조와의 관계는 어떻게 구상하고 있나 6) 학교 법인의 재정분담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은 7) 본 ·분교통합 이후 양 배움터 균형 발전을 위한 특성화된 비전을 제시한다면

기호 7김인철교수



2010 ~ 11 대외부총장
2008 ~ 10 서울캠퍼스 교무처장
2007 ~ 08 정치행정전문대학원장
2002 ~ 04 기획조정처장
1989 ~ 현재 행정학과 교수
2011 ~ 13 감사원 감사위원
2008 ~ 10 대강창장 겸직위원
2010 한국행정학회 학회장
2008 한국행정학회 부회장
2013 ~ 현재 한국폴리텍대학 총동문회장

1) 핵심 공약 37지를 피력한다면 2) 양 캠퍼스의 시설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계획을 제시한다면 3) 학제개편 등 학내 주요정책 결정에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고르게 수용할 방법을 제시한다면 4) 송도 캠퍼스 개발에 대한 계획은 무엇인가 5) 직원 노조와의 관계는 어떻게 구상하고 있나 6) 학교 법인의 재정분담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은 7) 본 ·분교통합 이후 양 배움터 균형 발전을 위한 특성화된 비전을 제시한다면

기호 6김중렬교수



1988년 3월 ~ 현재 한국외국어대학교 경영대학 경제학부 교수
1996년 11월 ~ 1997년 12월 의료개혁위원회 제2본부 전문위원
2002년 11월 ~ 2008년 5월 동계청 사회문화위원회 및 경제문화위원회 전문위원
2005년 3월 ~ 2007년 2월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협의회 회장
2011년 3월 ~ 2012년 2월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평의회 의장

1) 저의 소망은 무엇보다도 학생이 오고 싶어 하는 대학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교과과정, 우수학생 총원 등 여러 분야의 개선이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전교 20% 재학생에게 등록금의 20%에 해당하는 장학금을 지급하는, 소위 (이공이공(20~20) 장학금 수혜 원칙)을 시행함으로써 외대생 2명 중 1명은 장학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이문캠퍼스의 교세 확장과 글로벌캠퍼스의 현대화입니다. 이문캠퍼스의 경우 공간제약을 극복하기 위해서 시조사에서 회기역과 위생병원을 돌아 외대앞역, 한국예술종합학교와 서울캠퍼스를 잇는 축선내에 주택임으로써 공간을 구입하고 외대 로고를 부착하여 실질적인 캠퍼스 확대효과를 실현하려 합니다.

마지막으로 <외과대학> 설립의 초석을 놓기 위해 <외대 병원>을 배속하고자 합니다. 학교에 재정부담을 주지않고 추진될 병원배속 전후에 가칭 'Bio-의생명과학부'를 설치, 외대병원과 협업토록 할 것이며, 병원 전문의와 글로벌캠퍼스 교수님과의 공동연구를 통해, 국제저명 학술지 게재논문 중대에도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2) 서울캠퍼스는 도서관을 새롭게 1,800평으로 확장하고, 중앙도서관 · 법학관 · 미네르바 콤플렉스를 지하로 연결하겠습니다. 그리고 노후된 의사 등은 종중 전에 우선적으로 교체하겠습니다. 제27숙사는 인문관에 인접한 대강당 부지에 800명이 수용 가능한 8층 규모

로 신축하겠습니다.

글로벌캠퍼스는 자연대, 공대의 추가공간 확보의 일환으로 세화관을 2층 건물로 구조변경하여 자연대 공간으로 제공하겠습니다. 공과대학의 교양부 강의실은 신분관으로 이전하고 현재 1층 여유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겠습니다.

또한, 20대 이상의 대형버스를 도입하여 독자적인 통행 자주권을 회복하고, 6대의 코기리형 순환 카트를 도입하여 학생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1,200평 규모의 제3기숙사를 건설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글로벌캠퍼스의 정주인구를 늘리고 교통문제를 해소함으로써 글로벌 캠퍼스를 머물고 싶은 곳으로 만들고자 합니다.

3) 소통이 전제되지 않은 의사결정은 분명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래위원회>의 신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미래위원회란 대학발전에 필요한 주요 사안을 학과(bottom-up)와 대학(top-down) 간의 소통과 참여 원칙에 기초하여 논의하는 위원회입니다. 이러한 미래위원회를 통해 현재 학내 현안으로 부상하고 있는 본분교통합에 따른 학교 특성화방안, 중부학과 문제 등을 조정하고 합의를 도출해나가겠습니다.

4) 외대도 새로운 캠퍼스 확장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에 대해 학내 모든 구성원들이 동의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송도의 경우 수익사업단지의 조성과 비즈니스 컨벤션 센터의 설치 등 다양한 사업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자국동, 세곡동의 경우 개발을 제한하고 있는 각종 규제를 풀어나가 교우회관 건립 등을 포함한 발전사업을 법인사회에 건의 하겠습니다.

1) 첫 번째는 시대의 요구에 부합하는 우리 대학의 새로운 장기 비전을 찾아내겠다는 약속이다. 동문과 학내구성단체를 포함하면서도 독립적인 성격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새로운 성장 비전을 수립하고 관련 정책을 개발하도록 하겠다. 두 번째는 교육 체제와 내용의 혁신이다. 진정한 단일대학 양 캠퍼스 체제의 수립을 목표로 학제 개편과 전공체제 개편을 추진하겠다. 통합적이고 전문적인 교양교육 체제를 수립하고 '보충성', '연계성', '실용성'의 원칙 아래 교육내용을 개선하겠다. 졸업성의 해의 취입을 진작시키는 전략과 정책도 적극 추진하겠다. 제 번째로, 글로벌 캠퍼스의 위상을 가시적으로 제고하겠다. 신성장동력을 제공할 학과를 신설하고 중부속을 원화시킴과 동시에 다양한 문화 활동이 가능한 '자족형 캠퍼스'를 구축하겠다.

2) 시급성 측면으로 본다면, 양 캠퍼스에 제2도서관을 신축하는 것이 최우선일 것이다. 양 캠퍼스의 기숙 시설 확충도 꾸준히 추진할 계획이다. 상대적으로 시설환경이 열악한 글로벌 캠퍼스는 좀 더 많은 투자가 요구된다. 학생들의 효율적 동선을 고려한 공간 재배치, 공기질의 실험실 공간 확충 및 안전 보호 환경 개선, 기숙사 내 학습시설 확충 등은 필수적인 사업들이다. 반드시 실현시켜야 할 사업 중 하나가 레지던트형 콤플렉스의 건설인데 이는 거주공간 이외에도 실험과학의 실험공간, 영화관 유치 등 학생 및 주민의 문화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다. 양 캠퍼스 터윈의 명소화도 우리 대학의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다. 서울의 경우 캠퍼스와 한국예술종합학교 간 벨트를 다양한 외국식당이 있는 '제2의 이태원'으로 조성하겠으며 용인의 경우 외국가 구공예품 거리 조성을 추진하겠다.

4) 송도 발전 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그 러고 그간 이미 양 캠퍼스 체제로 어려움을 겪어왔던 우리 대학으로서서는 학생과 교수를 위한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 대운동과 세제화 시대이래다 연구를 선도하는 가장 '국제협력 지원센터'의 설립을 추진할 것이다. 또한 공공기관의 문서 번역을 지원하고 교수들은 '번역'의 설립도 추진할 것이다. 두 기관 모두 국가기관이나 기업의 지원을 적극 유치하여 준 국제기관 수준으로 발전시킬 것이다. 이러한 방안은 우리 대학의 연구역량 및 재정 기반 강화에 기여할 뿐 아니라 졸업성의 취업 전망을 확대해줄리라 확신한다.

5) 우선 단계교섭 과정과 내용이 공개되지 않아 자제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2007년 이후 두 차례에 걸친 단계교섭에서 단계협약이 체결되지 못한 상황으로 생각한다. 원칙적으로 노조의 합법적 활동은 보장되어야 하며 직원들의 권리로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이러한 조치들은 우리 대학의 경쟁력을 회복해야 한다는 목 표와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한다. 학교 집행부와 노동조합 지부 모두가 학교 발전에 대한 의

5) 직원분들을 외대 가족의 일원으로서 존중하는 마음으로 노조 측의 단체협상 조건을 경청하겠습니다. 유능한 신입직원의 채용개선과 업무전문화 및 근로조건 개선 등, 직원들이 최적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6) 우선, 지자체(경기도 혹은 용인시) 협력이사, 실질적인 재정기여 여 인사 등을 초빙하는 방안을 법인이사회에 건의하겠습니다. 학교예산은 2,400억에서 3,450억원까지 증대 시키겠습니다. 증대되는 1,050억은 학교기관 수익사업 300억, 정부 · 공공기관 · 국제기관 용역수주사업 100억, 기업과의 사업협력 100억, 기부금 200억, 정부의 전략언어권 지원프로그램 50억 등 여러 방안을 통해 실현시킬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학교법인의 재정분담을 증대해 줄 것을 요청하겠습니다.

7) 건학 당시부터 이어져온 우리 외대의 고유가치는 어문 · 지역학을 기반으로 한 복합학의 창설자입니다. 오늘날의 어문 · 지역학 교육은 단순히 외국의 것을 국내로 들여와 연구 · 교육하는 전통적인 유입(inbound)방식을 벗어나 한국의 것을 해외로 실어나르는 수출형(outbound)으로 그 의미가 확장되고 있습니다. 우리 외대가 지금까지 쌓아온 고유가치 기반은 지금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지식 수출'의 커다란 날개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어문 · 지역학'이라는 우리 외대의 고유가치와 '이공 · 이문 · 상경 · 사회과학 · 법'의 융합가치를 결합시킨 가치사슬(value-chain)의 구축을 통해 특성화된 외대의 새로운 문을 열고자 합니다. 혁신외대의 미래는 '강화된 고유가치를 기반으로 한 융복합 학문의 창의적 실현'이 그 요체가 될 것입니다.

를 갖고 있다면 결코 합의에 이르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본다. 결국 노동조합의 주장을 직원 근로조건의 개선으로 요약할 수 있다면 직전제 실시, 병행탐제 도입 등 직원의 인사에 노동조합 지부의 의견을반영해야 될 것이다. 궁극적으로 소속 장의원의 원칙을 통해 근로조건의 개선을 피할 수 있도록 합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6) 지적인 문제에 더하여 정부가 2014년부터 사학연금과 건강보험의 국가부담부분을 법인에 부담시키게 될 것으로 알고 있다. 또한 40여 억 원에 달하는 지원금 감소+1사립사업(교육역량강화사업과 3+1사업) 중단으로 발생하는 등, 학교의 재정여건 악화는 불가피해 보인다. 정부 정책의 맥락에서 등록금 인상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다각적인 재정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원칙적으로 이러한 문제는 법인이 책임지고 풀어나가야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법인이 지속가능한 해결책을 즉각 마련할 형편이 아니라는 점을 감안하면 법인에만 모든 문제를 떠맡기는 것은 오히려 무책임한 일이 될 것이다. 따라서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적 대응은 물론, 법인 및 학교의 수익사업 활성화를 통한 수익금 창출 등이 학교의 주도 하에 적극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7) 본 · 분교 통합이 되었다고는 하나 여전히 상당한 중복성이 남아있고 특히 글로벌 캠퍼스에 새로운 역동성을 창출하지도 못하고 있다. 글로벌 캠퍼스에 문화콘텐츠, 문화산업, 국제관광, 예술경영 등 우량학문을 신설하고 공과대학의 시너지를 확보할 수 있는 융합학과를 도입함으로써 새로운 역동성을 창출하겠다. 외국어교섭 학과도 중복성을 완화하고 일관된 특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학과와 함께 심도 있는 연구를 추진하겠다. 한편, 양 캠퍼스의 특성화도 단일대학 내 학문적 분절이나 교육적 소외를 발생시키지 않음과 동시에 캠퍼스 간 혼란과 갈등을 초래하지 않도록 전공제도를 재정비하고 화상강의 등의 의한 교과수업 시스템을 보장하겠다.

뒷담하는 기자 취재 뒷이야기
허규범 기자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보통, 학교 행사가 있으면 기록을 하는 기자와 사진을 찍는 기자 두 명이 동행하게 된다. 하지만 글로벌배움터에는 편집장을 포함한 기자가 세 명뿐이라 필자는 거의 모든 행사에 반강제적으로 참여해야한다. 불가피하게 다른 기자들이 못 가는 경우에는 혼자 현장에 가기도 한다.

그 날은 쌀쌀한 날씨에 빗방울도 조금씩 떨어지는 일요일이었다. 평소 같았으면 느즈막히 11시쯤 일어나 컴퓨터 전원부터 켜졌지만 아침 일찍부터 지하철을 타고 여의도로 갔다. 우리학교 전통 축제인 '세계 민속 축전'을 취재해야했기 때문이다. 유일한 글로벌배움터 동료 기자가 세민전에 출현해 함께 하기 어려워 혼자 카메라와 수첩을 들고 그 넓은 한강 물빛 무대 주위를 돌아다녔다. 남의 눈을 많이 의식하는 터라 아무리 배고파도 혼자서는 식당이나 카페에 못 가는데… 이름 '축제'인데 혼자 돌아다니는 걸 보면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외톨이로 보이지 않을까 속으로 생각하며 조금 참치하기도 했다. 그렇게 혼자 투덜대기를 몇 시간, 본 공연이 시작되고 각 나라 언어와 문화를 배우는 학생들의 수준 높은 공연이 펼쳐졌다. 사진을 찍기 위해 무대 근처, 제일 가까운 곳에서 공연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봤다.

또 기억나는 행사가 있다. 지난 주 8교시 수업이 끝나 후 지책을 먹고 볼 한 판 하러 가자던 동기들의 달콤한 유혹을 겨우 제고 그 간 곳은 연애특강이 열리는 공대 건물이었다. 하필 '연애특강'에 동행했던 동료기자도 여자일 게 뭐람. 이번에는 차라리 혼자 간 게 나을 뻔 했다. 입이 실리 밖으로 빠져 나와 수첩을 던지듯 책상에 내려 놓고 자리에 앉았다. 몇 분 후, 우리나라 최고의 연애강사라고 자부하는 컨설턴트의 강의가 시작했다.

바로 며칠 전에는 할로윈파티가 있었다. 역시 한 쪽 어깨에는 카메라를, 또 다른 손에는 수첩을 들고 학생회관 앞을 걸어 다니고 있었다. 본 공연이 6시부터 시작됐기에 5시 30분 수업이 끝나고 저녁도 못 먹은 상태로 취재에 나섰다. 날씨에는 또 왜 그렇게 출덕진, 그렇게 부대 행사하는 장면을 카메라에 담고 학생들을 인터뷰했다. 그 때 밴드 '데이브레이크'의 노래가 들렸다. 공연이 끝나고 추위에 떨며 긴 줄을 서서 기다려 이날 본 행사인 '귀신의 집 공포 체험'도 했다.

하지만 이것이 전부는 아니다. 세민전에서 아프리카학부의 '트림보'공연을 본 후 급하게 무대를 빠져나가는 아프리카 전통 복장을 학생 한 명을 잡고서 인터뷰를 요청했다. 공연을 성공적으로 마친 기분이 어떨지는 질문을 했고 트림보 학회장이 답을 해줬다. 급하게 인터뷰를 마치고 가는 학회장에게 "공연 진짜 잡았어요, 제일 좋아하는 학회예요,"라고 말했다. 연애 특강이 끝나고 나서는 모두가 나가고 주최자만 남은 빈 강의실에서 주최자에게 "취재자 왔지만 강의 정말 잘 들었어요, 좋은 자리 마련해 주셔서 감사해요,"라며 인사를 했다. 할로윈파티 데이브레이크의 공연에서는 자리에 있던 그 어떤 학생들보다도 신나게 발방 뿜고 있던 자신을 발견하기도 했다.

출근도 하고 배고프기도 하고 가는 길이 귀찮기도 했다. 하지만 현장은 '즐거웠다'. 먼 길을 왔고 친구들과의 약속을 깨지만 여태 갔던 어떤 행사도 기본 나쁘게 돌아왔던 적이 없다. 이것이 내 취재 철칙인가보다.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직원의 말풍선



송도별배움터 교무처 학사총합지원센터/학적담당

무너져 내릴 듯한 4층짜리 학생회관 건물, 연강에 바쁜 걸음으로 남나들던 미네르바동산, 사실인지 허구인지 모를 철학의 학교 뒤편 통곡의 벽……. '응답하라1994' 시절 풍경이 아니다. 겨우 새천년이 시작되던 2000년 새내기들이 기억하는 그해 봄 학교 풍경이다.

이처럼 졸업까지 여러 조건들이 많이 바뀌고, 캠퍼스 통합을 위한 제도의 정비도 이뤄지고 있다. 이런 변화 속에서 전공 신청과 졸업제도에 대한 의문으로 많은 학생이 학종지를 찾는다. 그런데 최근에 상담을 하면서 '이 정도는 충분히 알 수 있을 텐데'라고 생각이 드는 학생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이에 학생들의 원활한 학업 이수를 위해 지면을 빌어 몇 가지 팁을 알려드리고자 한다. 그전 바로 수강편람, 종합정보시스템, 그리고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주목하라는 것이다.

일시정지

편한 이야기, 그러나 중요한 이야기

최근 전자책 시스템으로 '수강편람'이 학교 홈페이지 핫링크에 게재된다. 전공, 교양, 실용 외국어, 각종 전공별 이수 및 교직과목 이수에 필요한 내용들이 종합적으로 실려 있다. 이 책에서 거의 모든 졸업에 필요한 요건을 확인할 수 있으니 반드시 숙지해야 한다. 때로 4학년 학생이 '졸업하려면 뭐가 필요하죠?'라고 전화 걸어와 황당할 경우가 있는데 이때도 재차 강조하는 것은 수강편람이다.

의외로 현재 자신의 상황(학점취득, 졸업시험 및 인증 제출여부, 학적상태 등에 대해서 문의를 하는 경우도 많다. 종합정보시스템에 로그인 후에 카레고리별로 본인의 거의 모든 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며 각종 신청도 그 곳에서 할 수 있다.

가끔 휴 · 복학 신청이 제대로 되지 않아 제적되는 경우가 있으니 유의해야한다. 또 수강신청 취소를 완료하지 않고 나중에 F를 받는 사례도 발생한다. 그러므로 반드시 신청 접수부터 최종 처리 완료까지를 확인해야 하고, 신청과정에서 또는 팝업창이나 확인창도 반드시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더불어 당부하고 싶은 것은 종합정보시스템의 개보정도 최신화다. 때로 휴학 1년 이후 연장 신청을 하지 않은 학생 중 연락이 닿지 않아 제적되거나, 사안별로 급하게나 학생에게 아득이 될

만한 일로 연락을 취해야 하는 때에 난감한 경우가 있다. 그러므로 전화번호나 이메일이 바뀌면 반드시 종합정보시스템 정보를 변경해줘야 한다.

마지막으로 강조할 것은 홈페이지 공지사항이다. 학교 홈페이지 첫 화면 하단 중간 부분에 몇 줄짜리 공지사항이 있다. 크게 공지, 학사, 장학, 채용, 구매/공사실적으로 나뉘져 있는데 해당 란을 클릭하면 카테고리별로 여러 가지 정보를 안내하고 있다. 이 공간에 게재되는 내용은 모든 공지 의 기본이다. 반드시 받아야 하는 장학금 혹은 이중전공 신청인데 신청기간을 놓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일주일에 한번 학교 홈페이지에 접속해 공지사항을 확인해본다면 그런 경우를 방지할 수 있다.

내가 바라본 새내기 시절 봄의 풍경과 여러분들의 새내기 시절 봄의 풍경은 많이 다를 것이다. 그리고 내가 받아왔던 커리큘럼이나 졸업을 위해 준비해야 했던 많은 것들이 여러분의 그것과도 많이 다를 것이다. 하지만 대학에서 학업을 이수하기 위해 정보를 접하는 기본적인 방법은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크게 다르지 않다. 4년의 레이스를 성공적으로 완주하기 위해 세 가지 중요한 팁을 기억하기 바란다. 미래를 향해 노력하는 외대인들을 언제나 응원하겠다.

한 평

잘하고 와, 긴장하지 말고, 아자!



지난 7일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있었다. '수능하파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그 날은 누구에게나 긴장과 떨림의 날이다. 몇 년간 준비한 '공든 탑을 결정짓는 날'이기에 더욱 그럴 것이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다. 시험을 지른 모든 수험생의 건승을 빌며, 따뜻한 모습으로 새로 입학할 14학년 새내기들을 기다리려만다.

신민지 기자 86hufspress@hufs.ac.kr

자녀호를 말한다 | 글로벌배움터 독자위원 이예림(통번역 · 독일어 12)

학생의 흥미에 발맞춰야

지난 호는 보다 구성적인 면이 더 알맞게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지난 비평이 알맞게 참고 됐다는 것이 느껴졌다. 지난 호는 행사, 보도자료, 협연 소식 등 새로운 학교 소식을 많이 담고 있었다. 또한 배내 LOL, 대회 같은 소소한 일상뉴스부터 글로벌배움터 영어어를 부지, 서울배움터의 정기총회 성사 건과 같은 중대한 이슈까지 양 배움터에 대한 많은 소식을 접할 수가 있었다. 보도의 측면이 부각돼 기능을 충실한 한 신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아쉬운 점은 대체적으로 기사들이 사실전달에만 초점이 맞춰져서 기자의 주관적 판단이나 사설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1면의 사학연금 기사의 경우 그에 대한 대책이나 나름의 해결책을 조금이나마 보여줬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예상해본다. 또한 4면의 제 10대 총장후보선거 기사에서도 이와 같은 아쉬움을 느꼈다. 최근 총장선거가 새로운 학교의 이슈로 떠오르면서 많은 학생들이 투표권의 부재에 대해 아쉬움을 느끼고 있다. 이러한 부분의 언급이 있었다면 사실보도와 학생들의 생각까지 전달하는 기사가 될 수 있었을 것이다.

6면과 7면에 해당하는 두 개의 기획기사는 지난 호에서 신선하고 훌륭한 기사였다. 6면의 결핵은 최근 늘 어기는 결핵 환자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

분했다. 공동체 생활인 학교에서 결핵은 꼭 예방할 필요가 있다. 이런 부분에서 많은 도움이 된 기사라고 생각한다. 이어 두 번째 글로벌배움터의 용인 영어마을부지에 관한 기사는 학보의 성격에 잘 어울렸다. 이 기사 또한 학생들이 알지 못하는 정보를 전달했다는 점이 훌륭했다. 8면이라는 긴 시간동안 방치되고 있는 용인 영어마을부지의 존재를 알리고 생각을 제고할 수 있었다. 그러나 9면의 경우 날이치기에 어렵고 지루하게 느껴졌다. 통째라는 딱딱한 소재를 쉽게 풀기 위해서는 학문적 정의에 기초한 구성이 아닌, 타 과 학생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향이 필요했다.

마지막 12면의 외대 인터뷰는 많은 학생들의 흥미와 관심사인 진로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었던 좋은 기사였다. 우리학교 학생들이 외국어 학습을 하면서 대학교에서 배운 외국어를 잘 활용할 수 있는 진로에 대해 고민을 하는데 윤강로 씨 같은 흥미있고, 독특한 진로인 스포츠 외교관을 인터뷰를 통해 배울 수 있었다.

지난 호는 적은 수의 기자들이 만들어 낸 신문이었지만 이제까지 나왔던 신문들 만큼 좋은 질을 가지고 있었다. 외대 학보는 독자들에게 더 열린 기회를 제공 하는 새로운 형태의 신문으로 바뀌어가고 있다. 앞으로도 학보가 열린 소통의 창이 되기를 기대해본다.

외대학보
2013년 11월 14일 목요일 965호



▲자유언론의 아버지 존 밀턴은 1644년 정부 검열에 의해 그의 저서 출판에 제재를 받게 되자, 허가 받지 않고 인쇄할 자유를 위해 '아레오파지티카(Areopagitica)'라는 소책자를 세상에 내보냈다. 그는 사전에 출판을 막는 것은 공극적으로 더 큰 죄악이 됨을 고하며 자유로운 출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러한 사상이 발전해 현대사회에서 언론의 자유는 실현되고 있는가? 적어도 대학언론은 그렇지 않은듯하다.

▲지난 달 14일 성균관대학교 학보사 성대신문이 주간교수의 일방적인 결호 선언으로 1552호를 발행하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신문 편집과정 중 기획안 변경 및 특정 사안의 기사화에 반대한 주간교수가 기자단과 합의 없이 제작 중단을 통보한 것이었다. 이후의 신문 제작도 거부당하는 등 현재 성대신문 기자단은 무제호 호의 발간 및 서명운동에 나서며 주간교수 사퇴와 편집권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성대신문은 이미 지난 해에도 한차례 결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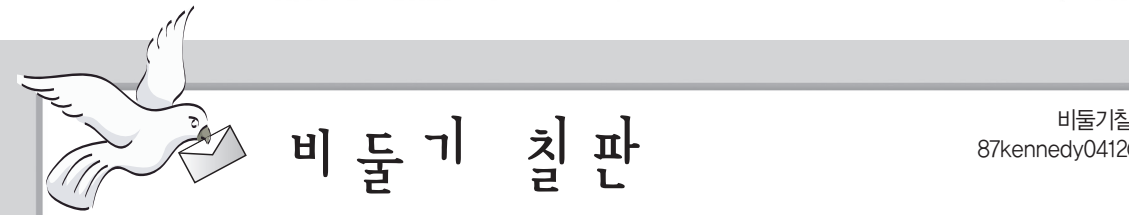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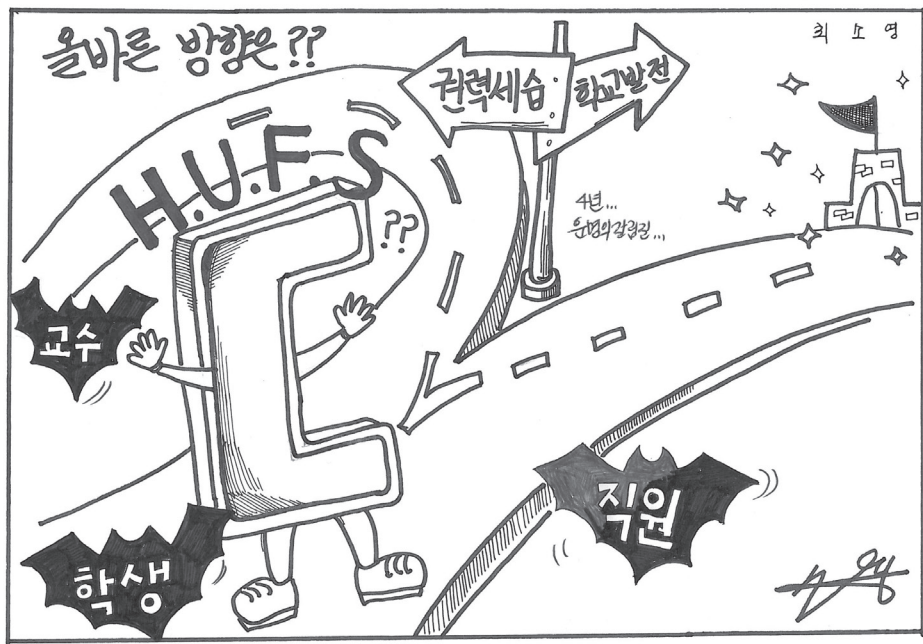
아레오파지티카를 향해

사태를 겪은 바 있다.

▲이 같은 상황은 비단 몇몇 학교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현재 많은 대학언론이 학내 영향력을 상실한 채 불합리한 편집권 침해를 받으며 학교와 같은 대학교부터 기사검열을 받은 경우도 의외로 수도권 대학 학생기자들을 대상으로 대학언론의 편집권 자율 현황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45.8%가 학내 언론의 부정적 사안 게재에 있어 "자유롭지 않다"고 답했다. 학교로부터 기사검열을 받은 경우도 34.4%에 이르렀다. 기사의 표제, 내용 수정 요구에서부터 재정을 끌어내는 등 갈등의 양상도 가지각색이다.

▲외대학보도 몇몇하다고 할 수는 없다. 지난 해 편집권 탄압으로 자체 제작중단을 단행한 이후, 현 구조의 개편에 성공하지 못하고 다시 한 번 주저앉고 말았다. 매호 신문 제작마다 대학본부와 줄다리기를 벌이는 것이 반복되고 있다. 줄다리기에 지친 기자들의 이

만 평



비둘기칠판 보내는 곳
87kennedy0412@hufs.ac.kr

안쏘에게

안녕 소연아 나 정이야. 어제는 잘 들어갔니? 2학기 들어 월요일마다 너를 보게 돼서 정말 기뻐! 그리고 보니 진직의 금요일 이후로 항상 같이 보는 것 같아. 내게는 부끄러운 날이지만(나중에 내 아들딸한테만은 비밀로 해줘...) 그 날 이후 더 친해져서 좋아. 그 전에 홈데에서 발생한 거 기억나? 나중에 모두 카메 들어가서 좋았는데, 그 때 너 자는 사진 예전 핸드폰에 있어. 잊지 못할 추억이 될 거야. 앞으로도 계속 즐거게 추억 만들어가자!

3월에 처음 봤을 때도 너 지금처럼 밝고 주변을 환하게 해주는 아이였어. 그전부터 느꼈지만 너랑 있으면 세상이 예쁘고 밝게 느껴져. 그만큼 너가 우리를 기쁘게 해준다는 거겠지? 너의 궁정 에너지는 주변에 큰 힘이 돼. 너의 정말 큰 장점이자 본받고 싶은 모습이야. 그리고 밥 굶고 다니지 마. 하루 두 끼 이상은 꼭 먹어.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너 정말 사랑할 수밖에 없는 아이야이 매력쟁이!

말썽쟁이 정이가

▲ 보낸이 소연앙이 그린 다정한 둘의 모습.

한국의대가 준 선물 지영이에게

지영아~ 나 소연이야. 우리가 입학한지 벌써 9개월이 지났다. 입학할 때는 내가 좋은 친구를 사귄 수 있을까? 하는 걱정에도 항상 긴장하고 있었어. 그 때 너는 나를 처음 봤는데도 환하게 웃으면서 안아줬었지. 그 때 정말 나에게 감동받았던 것 같아. 네가 안아줘서 긴장은 가라앉고 내가 정말 환영받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어. 같은 학회를 하고 같이 놀면서 우리가 만난 지금은 9개월밖에 안됐지만 너는 나에게 10년지기 친구가 된 거 같아. 너는 공부도 열심히 해서 1학기에 나랑 비슷한 수준이었던 것 같았는데 이제는 내가 뭘 물어봐도 부담 없이 대답해주는 수준으로 일본어가 늘었지…….ㅠ 비법이 뭐야? 수업시간에 항상 너랑 설린이에게 일본어를 계속 물어봐서 너희가 집중을 못할 거 같아ㅠ 나도 너처럼 빨리 일본어 실력이 늘어야 하는데~ 항상 미안해. 하지만 너희를 사랑하는 내 맘 알지? 어제 저녁도 같이 밥 먹고 놀았는데 세상만큼 편지를 쓰려니 민망하지만 이제 내 진심인가 알지? 내가 장난치는 거 다 받아주고 알바하느라 바빠서 잘 만나지도 못하는데 별 때마다 항상 즐겁게 해줘서 알바 할 힘이나. 사랑해 지영아~~

이은결 부장

만 평

국 · 부장 고정결함

사설

변화와 발전의 8년을 돌아보며

우리 사회에는 잘한 것을 칭찬하지 않고 의도적으로 외면하거나 흠을 잡아 깎아내리는 네거티브 문화가 존재한다. 인품이 훌륭한 분도 경쟁자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그 사람이 잘한 점도 있지만..."으로 시작해 흠집내기로 말을 맺는 일이 종종 있다. 많은 경우 네거티브 문화는 과도한 경쟁 체제에서 상대방을 적으로 간주할 때 나타나지만, 때로 이해관계가 없는 상황에서도 특정 이념을 사회정의로 포장하면서 생기곤 한다.

지난 2008년 1월 우리 학교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유치에 성공했다. 유치가 실패했다면 학교의 위상이 하락하는 것은 자명했기에 피와 땀으로 일궈낸 소중한 성과를 자축했다. 하지만 학내 언론 한 곳에서는 로스쿨(=Law School)이 아니라 로우스쿨(=Low School)이라며, 로스쿨 유치가 큰 학업을 가져올 것처럼 비판하는 표지를 실었다. 학교는 갑이고, 갑이 하는 일은 무조건 나쁘다는 식의 이념에 사로잡힌 사례다.

박철 총장의 8년은 변화와 발전의 시간이었다. 캠퍼스의 모습은 이전 51년 보다 더 많이 변해 이제는 2006년 이전의 모습을 찾아보기 힘들다. 서울배움터의 경우 신분관 증축과 지하캠퍼스 조성 등의 건설 사업을 통해 면적이 크게 늘었고, 발전 기금 유치와 수의 사업을 통해 예산도 2배로 증가했다. 글로벌배움터에도 제2기숙사가 건립됐고, 신분관 완공을 눈앞에 두고 있다. 여러 제도적 개혁, 해외 대학교의 교류를 통한 교육과 연구의 혁신, 교수 인센티브제도 운영을 통한 연구 능력 신장 등 셀 수 없이 많은 변화를 만들어냈다.

하지만 대학 내 네거티브 문화는 그냥 비껴가지 않았다. 어떤 조직이건 지도자가 일을 열심히 할수록 칭찬보다는 비판을 받게 마련이다. 변화와 개혁 자체를 거부하거나 그 방향이 자신의 생각과 다르다고 문제의식을 갖는 사람들, 누군가 앞에 나서서 변화와 개혁을 외치는 것이 불편한 사람들은 '변화와 발전'을 독선과 불통이라고 비판했다. 밝힐 것은 밝히고, 역사에 기록할 것은 정직하고 바르게 기록하자. 외대의 지난 8년이라는 '변화와 발전'으로 요약해도, 그 과정에서 분명히 잘못도 있었고, 상처받은 이들도 있었지만, 잘한 일이 압도적으로 많은 8년이었다. 우리 학교는 세계초류тип대학으로 성장하기 위한 발판을 다졌다. 이제는 새 총장의 선출, 취임을 통해 찬란한 발전과 번영을 실현하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다. 그러기 위해 지랑스러운 소중한 역사, 지나온 시간을 네거티브 문화의 재물로 태워버리는 우를 범하지 말자.

2014년, 꼼꼼히 잘 따져보시길

선거의 계절이 돌아왔다. 특히 이번 학기는 4년 만에 돌아온 총장선거도 있다. 이에 동문을 비롯한 직원, 학생 등 학교 전 구성원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하지만 사실 우리학교의 투표권은 교수협의회에 한정됐다. 양 배움터의 총학생회와 직원 위원회에서는 투표권 정취를 위한 행동에 나서고 있다.

또한 매 해 있는 선거지만 현재 양 배움터 총학생회 및 단과대학, 학생자치기구 등의 선거도 진행 중이다. 하지만 학생들은 매년 치러지는 선거에는 관심이 덜 한 듯하다. 서울배움터의 총학생회선거는 벌써 몇 년째 투표를 미달로 무산되기 일췌기 때문이다. 글로벌배움터의 이번 총학생회 선거는 몇 년간 보기 힘들었던 단선후보다.

하지만 2014년은 우리학교에게 무척 중요하다. 먼저 다음 해부터 우리학교는 본 · 분교가 통합 돼 중 · 대형대학으로 거듭날뿐더러 개교 60주년을 맞는 해이다. 또한 앞서 언급했던 박 철 총장의 8년간 재임을 마치고 새로운 리더가 선출되고도 한다. 그 간 이뤄낸 개혁을 바탕으로 이제는 새로운 가능성으로 발전의 재도약과 현재의 한계를 돌파할 때다.

현재 총장후보선거에는 여덟 명의 교수가 후보자로 나섰다. 후보자들은 각기 다른 경력과 공약들을 내세우며 자신만의 비전을 내세우고 있다. 하나같이 모두 획기적이고 훌륭한 공약을 이야기하고 있으나 이렇듯 후보자가 많은 상황에서 학내 구성원들은 하나하나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 더욱 필요할 것이다. 이에 학생들도 비록 투표권은 없지만 4년간 학교를 대표한 인물들 선출함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지켜보며 무엇이 진정 우리에게 필요하고 도움이 될 것인지 분별해야 할 것이다.

이에 본지에서는 총장후보자에게 7개의 질문으로 구성된 서면 인터뷰를 진행했다. 학생들은 공약집 열람을 총장 선출 이후 열람할 수 있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2014년 더욱 중요한 해이기에 올바른 판단과 시각으로, 공정명대한 선거가 치러지기 바라며 새로운 변화의 흐름이 될 다음 해를 꿈꾼다.

외대학보는 독자의 의견을 통해 빛이 납니다.

독자기고	외대인이 만난 세계(8면) / 아껴내려 듣는 교양(7면) / 직원의 말풍선(7면) / 일시정지(사설) / 비둘기 칠판(3면)
소정의 선물	독자기고를 해주시분들께는 소정의 원고료와 기념품을 지급합니다.
기사제보	facebook.com/newhufspress 편집장 신민지(통번역 · 태국어 11) 010-4002-0299, 86hufspress@hufs.ac.kr

www.oedaehagbo.com

한 강

1955년 4월 11일

발행인

박 철

편집인 겸 주간

전종섭

편집장

신민지 | 부 장 이은결 오유진(객원) 조인우(객원)

정기자

임수진 최소영 허규범

조 교

정다빈 지윤주

제 작

경보미디어 | 인 쇄 중앙일보

학생기자실 (서울)

02)2173-2504 / (글로벌) 031)330-4112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로 107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외대로 81

facebook / newhufspress



▲지난 11일 열린 서언회 주최 서울시장 간담회에서 서울시 청년 정책에 대해 열띤 모습으로 답변하고 있는 박원순 시장.

지난 11일 서울권대학언론연합회(이하 서언회)에서 '박원순 서울시장 재임 이후 서울시 청년 정책에 대한 평가 및 계획'을 주제로 박원순 서울시장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지난 2011년 10월 26일 보궐선거로 당선돼 다음 해 6월로 임기를 마치는 박원순 시장은 취임 이후 서울시립대 반값등록금, 기숙사 대책 등 역대 그 어느 서울시장보다도 청년 문제 해결을 위해 힘써왔다. 이에 박원순 시장에게 소통, 복지, 문화 등 청년 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본 간담회에는 서언회 소속 15개 대학 학보사(건국대, 경희대, 국민대, 서강대, 서울과기대, 서울대, 서울시립대, 성균관대, 숙명여대, 숭실대, 연세대, 이화여대, 중앙대, 한국외대, 한양대)가 참여했다.

서언회 서울시립대를 시작으로 반값등록금 정책이 실현됐고, 반값등록금은 서울시, 중앙정부, 각 지자체, 교육부 등 많은 곳에서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립대는 '공립'이라는 이점을 가지고 있다. 사립대학의 경우에도 등록금 실현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나?

박원순 시장(이하 박) 시립대의 반값등록금을 실현으로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었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공헌이 됐다. 학생들이 등록금 별이를 하는 시간에 여러 취미활동이나 자기 성장을 위한 여러 노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반값등록금이라는 것은 단순한 돈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지난번 대선 때 여야후보 모두 공약으로 내걸었을 정도로 반값등록금은 사회적으로 의제화가 됐고 실제로도 등록금 인하 효과가 있었다. 국가가 교육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 반값등록금의 가능여부가 달라진다. 유럽의 대학들은 등록금이 거의 없는 수준이다. 정부가 추진하면 가능하다. 현재 서울시에서는 시립대뿐만 아니라 공익장학생으로 사회와 이웃을 위해 일을 하면 장학금을 제공하는 장학제도를 만들었다. 이자경감조례도 제정하는 등 여러 다방면으로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는 지방정부기에 재정적 한계가 있다. 이는 중앙정부도 함께 해야 할 일이다.

서언회 지난 9월 서울시에서 '아르바이트청년권리장전'을 발표했다. 아르바이트 외에도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가 심각한데,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

박 등록금 마련을 위해 많은 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한다. 심지어 아르바이트를 하는 고등학생들도 많다. 그렇기에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소년에 대한 고용권리보장이 중요하다. 규범이 있어야 사업주나 아르바이트 청소년들이 자기 권리를 알 수 있다. 이에 서울시는 아르바이트청년권리장전이라는 것을 입법에 일정한 가이드라인을 만든 것이다. 그 실효성 담보를 위해 청소년을 대규모로 고용하고 있는 기업들과 준수 약정서도 맺었다. 그럼에도 중소기업에서는 잘 지켜지지 않아 대학생단체나 시민단체 등에서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예정이다.

우리나라 전체 노동자 중 약 59%가 비정규직이라는 비공식 통계가 있는데, 비정규직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미래의 자기 삶을 스스로 설계하기 힘들다는 뜻이다. 아주 비인간적일뿐 아니라 사회 전체의 발전도 저해하는 현상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취임 이후 서울시에서 일하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했고, 7,000여명의 비정규직 노동자가 정규직으로 전환되고 있다. 또한 서울시는 앞으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는 정책을 펴는 기업을 우대하는 등 여러 방법으로 시스템을 바꿔나갈 것이다. 정규직을 늘려감으로써 생산성도 높이고 효율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서언회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관련해 정년이 문제로 지적된다. 대학 내에서는 청소년노동자가 이에 논란이 있었다. 실제 서울시립대의 경우 정년 65세 고정으로 오히려 많은 노동자가 해고될 위기에 처했다. 게다가 최근 중앙대 청소년노동자 노동조합에서도 정규직 전환을 요구했지만 학교 본부는 서울시립대 예를 들며 정규직 전환은 현재 노동자가 오히려 일을 그만둬야 하는 고용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이에 대한 의견과 대안은 어떠한가?

박 현재 서울시에서도 상당히 고민스러운 부분이다. 물론 70세까지 일하는 것도 바람직하겠지만 우리나라 정년은 대부분 58세다. 사실 65세까지 정년을 늘리는 것도 큰 과제였다. 70세까지 연장하게 된다면 상대적으로 다른 세대가 취업의 기회 박탈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년 설정의 범위는 현재로써도 딜레마다. 다만 서울시립대 청소년노동자의 경우 65세 이상 청소년노동자가 있었기에 한편으로 구제의 필요성이 있을 수 있다. 58세 정년에서 60세, 65세로 연장하는 것도 어려웠기에 보다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이다.

서언회 비정규직 문제뿐만 아니라 학생 주거문제도 심각하다. 희망하우징이라는 사업을 유치함으로써 이를 구체화해 노력했지만 여전히 학생들의 주거문제는 남아있다. 이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

박 대학생들이 주거비용에 투자하는 어려움을 잘 인지하고 있다. 특히 지방에서 올라온 대학생들의 고충이 많다. 우선 대학이 스스로 기숙사를 지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고, 지방정부에서는 고향 출신 대학생들이 서울에서 좀 더 편하게 지낼 수 있도록 마곡지역에 땅을 쥐 8개 지자체와 건축하고 있다. 서울시가 직접 짓는 기숙사도 있다. 공공임대주택이 많아져야한다는 것은 시대의 요구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임대주택을 제공해야하는 것은 정부의 책임이다. 하지만 서울시에서 기숙사, 행복주택 등을 짓기 위한 땅은 대부분 그린벨트지역이기 때문에 도시 주민들에게는 삶의 질을 낮추는 조건이 되기도 한다. 그런 측면에서 바라본다면 주민들의 반대를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주민들과 충분한 협의와 소통을 통해 타협해야한다. 예를 들면 행복주택의 경우 다른 사업보다 대규모로 진행되기에 반대 여론이 훨씬 강경하다. 개인적

박원순 시장, 학생기자들과 함께 청년을 이야기하다

으로 시민들이 끝까지 반대한다면 진행하지 않는다는 원칙이 있지만 그런 경우에는 소통과 합의로써 격차를 서서히 줄여나가야 한다. 현재 서울시는 다음 해 까지 총 만이천명이 입주할 수 있는 주거시설을 확보했기 때문에 애초 목표를 초과 달성한 셈이다. 하지만 여전히 부족한 것은 사실이다. 앞으로 임대주택은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이며, 그 과정 속 주민과의 갈등도 잘 풀어나가야 할 것이다.

서언회 등록금, 비정규직, 주거 문제 등에서 많은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지만 결국 모든 문제가 재정과 관련된다. 재정문제는 다른 사업에도 직결되는 핵심적인 부분이다. 재정문제를 어떻게 개선해나갈 수 있을지.

박 세금은 중앙정부와 국회에 의해 정해진다. 지방정부에서 받을 수 있는 세금은 제한돼있다. 보편적 복지는 중앙정부가 책임져야하며, 지방정부는 시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사업을 하는 것이다. 이것이 중앙과 지방정부의 관계이고 지방자치제의 의미다. 지방정부는 재정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첫째, 재정을 아껴 낭비를 줄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쓸데없는 토목공사 등을 줄여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곳에 써야한다. 재정 낭비를 막기 위해 서울시는 또한 '서울위키(참여예산 예산낭비신고센터)'를 만들어 모든 사업정보를 인터넷에 올려 시민들이 감시하도록 하고 있다. 둘째로는 경제를 살리는 데 동참하는 것이다. 도심 산업을 살리고, 창조경제를 위해 일조하며, 일자리 창출을 위해 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새로운 일자리와 수익 창출로 경제가 돌아야 재정이 충실해지고 여러 복지사업도 할 수 있다. 어려운 점이 많지만 서울시는 현재 창조와 혁신으로 많이 바뀌고 있다.

서언회 과거의 대학생들과는 달리 요즘은 대학생들이 향유할 수 있는 '대학생들만의 문화가 많이 퇴색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취업과 스펙 쌓기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사회 분위기가 변한 것도 원인이지만 이들을 위한 문화 공간이나 관련 프로그램이 적은 것도 이유 중 하나로 지적된다. 이런 현실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대학생들만의 주제적인 문화 형성을 위해 시 차원에서 어떤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보는지.

박 대학문화는 그 시대의 문화를 주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오히려 대중문화를 추수하는 것은 곤란하다. 기존의 대중문화를 따라가기 보다는 이를 선도하는 새로운 창조적 문화를 만들어내야 한다. 이는 전통에서도 찾을 수 있다. 기존의 관념을 새롭게 만드는 것은 기성세대가 하기 어려운 일이다.

예를 든다면 서울시에서는 우리나라 최초일 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드물게 동물원 돌고래 '제돌이'를 바다로 돌려보냈다. 이는 그 동안 사회적 통념과는 아주 다른 새로운 접근을 시도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이처럼 우리 청년들이 다양한 형태로 새로운 콘텐츠 창출에 도전하길 바라며, 서울시에서도 그런 여러분을 얼마든지 지원할 것이다.

서언회 '청년정책네트워크 청정비빔밥'을 구성하는 등 청년들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려는 노력이 엿보인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청년들과 소통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소통뿐만 아니라 청년들의 직접적인 참여도 요구하는데 진정한 '참여'의 의미를 무엇이라 보는가.

박 듣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불만이든 제안이든 정책적으로 많은 도움을 받는다. 청년들을 위한 정책들이 많이 나올 수 있던 것도 청년들의 고충을 직접 듣기 때문이다. 참여 민주주의가 그만큼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시민들을 주인으로 모실 때 가장 시민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 전문가 몇 명이 모여 정책을 구성한다면 그것은 그야말로 '그들만의 천국'일뿐이다. 정작 정책결정자들은 현장과 일상을 잘 모를 수 있다. 집단지성이라고 하듯, 정책 의사결정과정에 시민이 열정적으로 참여한 만큼 좋은 정책이 만들어질 가능성도 높아진다. 뿐만 아니라 반대도 적어져 정책이 빨리 추진될 수 있다. 취임 이후 결정된 정책들은 실제로 논쟁이나 반대의 목소리가 상대적으로 작았다. 서울시는 현재 명예부시장, 일일부시장, 시민발언대, 정책토론회, 참여예산제, SNS 등 다양한 참여의 길을 터놓았다. 전 세계에 서울시만큼 시민들의 참여가 보장돼 있는 곳은 없다. 참여 민주주의의 천국이 서울시다.

우리나라 대학이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문제이겠지만 우리학교도 재단법인의 소극적 재정부담 등으로 인한 등록금 인상과 높은 비율의 재학생을 수용하지 못하는 기숙사 등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먼저 학내 노력뿐 아니라 박원순 서울시장의 말처럼 서울시와 더불어 중앙정부의 지원이 절실히 필요할 것이다. 앞으로 많은 부분에서 개선되고 발전할 대학사회 내 변화의 바람이 불길 기대해본다.

서언회와 함께한 이번 박원순 서울시장 간담회는 라이브서울(<http://tv.seoul.go.kr>)에서 시청 가능하다.

서울권대학언론연합회 공동기자단
정리 이은결 기자 86leg@hufs.ac.kr



▲이날 박원순 시장은 대학생 기자들과 함께 열린 소통의 장을 가졌다.